

2024 베트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공급망 협력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6
나.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확정 발표	8
다. 양국 세관 분야 협력 강화로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9
라.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위기와 기회의 상존	10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51
가. 시장 특성	51
나. 교역	55
다. 투자	63
라. 프로젝트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70
가. 교역	70
나. 투자 진출	75
다. 협력 유망 분야	79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84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85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86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95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99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101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102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3년: 당초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 경제성장률 5.0% 내외 전망

-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 5.33%, 1~9월 성장률 4.24%(베트남 통계총국)
 - 3분기 경제성장률의 경우 1분기(3.28%), 2분기(4.05%)보다는 높으나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최저
- 2023년 정부 공식 목표치인 6.5%는 달성이 어려워 보이며, 경제 기관들도 베트남의 2023년 성장 전망치를 연초 대비 하향 조정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대외 수요 감소, 일부 선진국의 통화 긴축, 지정학적 긴장 심화 등 주로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분석됨

〈기관별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평균
종전 (발표 시기)	6.5 (‘23년 4월)	4.7 (‘23년 4월)	6.5 (‘23년 4월)	6.3 (‘23년 4월)	7.2 (‘23년 3월)	6.24
조정 후 (발표 시기)	5.8 (‘23년 7월)	4.7 (‘23년 9월)	-	4.7 (‘23년 8월)	5.4 (‘23년 9월)	5.15

자료: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2024년: 전년 대비 상승, 경제성장률 6.0% 내외 전망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4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6.0~6.5%로 전망
- 세계 주요 경제 기관, 2023년에 비해 낙관적으로 전망
 - 안정적인 내수 소비와 비교적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불안정한 대외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기관별 2024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평균
전망치 (발표 시기)	6.0 (’23년 9월)	5.8 (’23년 10월)	6.6 (’23년 4월)	5.5 (’23년 8월)	6.7 (’23년 1월)	6.12

자료: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투자) 다국적기업의 중국 생산기지 이전, 미국과의 관계 격상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인해 FDI 증가세 이어질 것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 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인 구	백만 명	93.67	94.67	96.48	97.58	98.51	99.46	100.35	101.20
명목GDP	십억 달러	277.07	304.47	331.82	346.31	369.74	406.45	449.09	498.37
1인당 명목GDP	달러	2,958	3,216	3,439	3,549	3,753	4,087	4,476	4,925
실질성장률	%	6.9	7.5	7.4	2.9	2.6	8.0	5.8	6.9
실 업 륜	%	2.2	2.2	2.2	2.5	3.2	2.3	2.4	2.4
소비자물가상승률	%	3.5	3.5	2.8	3.2	1.84	3.2	5.0	4.3
재정수지(GDP대비)	%	-2.0	-1.0	-0.4	-2.9	-3.4	-2.5	-3.3	-3.1
총수출(a)	백만 달러	215,119	243,697	264,267	282,629	336,167	371,304	-	-
(對韓 수출)(b)	"	16,177	19,643	21,072	20,579	23,966	26,725	-	-
총수입(a)	"	213,007	236,869	253,393	262,691	332,843	358,902	-	-
(對韓 수입)(b)	"	47,753	48,622	48,178	48,512	56,729	60,967	-	-
무 역 수 지(a)	백만 달러	2,112	6,828	10,874	19,938	3,324	12,403	-	-
경 상 수 지	"	-1,651	5,769	12,167	15,060	-7,871	-3,566	983	2,908
환율(연평균)(c)	현지국/US\$	22,698	23,175	23,173	23,098	22,826	23,633	23,792 (d)	23,800 (e)
해외직접투자(f)	억 달러	3.50	4.32	5.08	5.90	4.09	5.34	-	-
외국인직접투자(f)	억 달러	371.0	355.7	389.5	285.3	311.5	277.2	280~ 300	-

주: (a) 베트남 관세총국(GDC), (b)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통계총국(GSO), (d) 베트남 중앙은행(SBV), (e) UOB(대화은행) 전망치, (f)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외에는 모두 IMF 통계 인용. '23년 연평균 환율의 경우 월별(1~10월) 말일 고시환율의 평균
자료: IMF, GDC, 한국무역협회, GSO, SBV, UOB, MPI,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주요국의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베트남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노력도 계속될 것. 양국 간 통상 분야 협력을 통해 2024년에 우리 기업의 편의 증대가 예상되나, 투자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가. 공급망 협력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높아진 지정학적 가치

- (대외적 환경) 미·중 갈등 및 러-우 사태 지속, 중동(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 2024년에도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로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 수요 지속
- (지정학적 가치) 지리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중국과는 국경을 맞닿고 있으며, 넓은 해안선을 보유해 무역에 유리한 환경
 - (중국) 육상·해상이 모두 접하고 있어 '일대일로'의 성공을 위해 협력이 필수적
 - (미국) 중국의 견제를 위한 주요 교두보
 - (글로벌 기업) 중국과 인접하여 脫중국에 용이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조달·중국 우회 수출에 있어 강점

▣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통한 실리 추구, 주요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 지정학적 위상이 강화된 베트남은 2023년 실리 외교를 펼치며 주요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2024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대나무 외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자는 베트남의 외교 원칙
 - (베-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22년 12월)
 - * '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
 - (베-미) 美 대통령 방문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23년 9월)
 - * 중국(2008), 러시아(2012), 인도(2016), 한국(2022) 등 전 세계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
 - (베-중, 베-러) 시진핑 주석(10~11월), 푸틴(11~12월) 연내 베트남 방문 예정

16개 FTA 체결, 개방적인 무역 환경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내 위치 공고화

- 각종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개방적인 수출입 환경
 - 베트남은 한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및 CPTPP, RCEP 등 다자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여 전 세계 52개국을 아우르는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 ASEAN 역내에서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건수는 싱가포르(27건)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함께 두 번째로 높음
 - 더 나아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랍에미리트(UAE),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과 신규 협정 체결 협상 및 검토 중
 - 이로 인해 무역·투자에 대한 베트남의 개방성이 향상되어 베트남 생산자가 해외 공급망과 연결되는 것이 주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
 - *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때 관세 혜택을 받고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CFTA(중국, '05년 7월 발효), AKFTA(한국, '07년 6월 발효), AJCEP(일본, '08년 12월 발효), AIFTA(인도, '10년 1월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년 1월 발효), AHKFTA(홍콩, '19년 6월 발효), RCEP(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22년 1월 발효)	-	ASEAN- CANADA (캐나다)	-
베트남 단독	VJEPA(일본, '09년 10월 발효), VCFTA(칠레, '14년 1월 발효),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년 12월 출범), VKFTA(한국, '15년 12월 발효), VN-EAEU FTA (유라시아경제연합, '16년 10월 발효), CPTPP(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19년 1월 발효), EVFTA(EU, '20년 8월 발효), UKVFTA(영국, '21년 5월 발효)	VIFTA (이스라엘, '23년 7월 서명)	VIETNAM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VIETNAM -UAE (아랍에미리트)	VIETNAM- MERCOSUR (남미공동시장)

자료: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WTO 센터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나.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확정 발표

▣ (안정적 전력 수급) 발전원별 경제성 확대 및 지역별 수요·공급 안정화 도모

- 발전원 다양화·효율화 통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 구성 추진
 -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전력원 개발 가속화, 전력원 및 생산 비중에서 지속 증대
 - (수력) 베트남 내 수력발전원 잠재력(약 40,000MW) 극대화 통한 추가 공급원 확보
 - (석탄) 기존 7차 전력개발계획 포함 사업만 지속 추진, '30년까지 석탄연료를 바이오 매스·암모니아연료로 전환
 - (가스·LNG) 자국 내 자원 연구개발 확대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및 경제 효율성 제고
- (신규 전력망 확충) 경제 수요에 기반한 신규 전력망 확충을 통한 전력 공급 효율성 및 신뢰도 상승
 - * 경제성장률(GDP) 전망을 토대로 한 전력 수요 계획: ('21~'30) 연간 7%, ('31~'50) 6.5~7.5%
 - 신기술 도입, 지역별 수요 기반 송전 시스템 개발 및 스마트 그리드 개발 추진
 - 전력망 투자 확대(고압 송전, 변전 인프라 확충) 통한 전력 공급 신뢰도 제고 및 전력 손실률 최소화

▣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기반 국제협약 이행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 대용량 신재생 발전원(태양열, 풍력 등) 운영 위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 추진
- JETP 목표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속화
 - 신재생 확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망〉

(단위: %, 백만 톤)

구 분	2030년	2050년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	30.9~39.2	67.5~71.5
온실가스 배출량	204~254	27~31

자료: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다. 양국 세관 분야 협력 강화로 진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및 발효

- 1995년 체결 후 한-베 정상회담 계기로 개정의정서 서명 및 발효
 - 한베 양국 간 세관 분야 상호 행정 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관 상호지원협정은 양국의 교역 증대 및 변화하는 교역 환경을 반영하여 2023년 9월 개정의정서 발효
 - 금번 개정의 중요 골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및 FTA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 조항 신설
 -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각국의 관세 당국 심사를 통해 세관 관리 규정 및 물품 관리 체계가 안전하다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

- EODES 시행에 따른 진출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증대
 - FTA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의 일환으로 양국의 관세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 전자 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도입하여 2023년 7월 정식 운영 시작
 - 이는 원산지 증명서 분실 위험 및 통관 지연 애로 해소 방안을 제공하여 양국 간 FTA 활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 기존 베트남 통관 절차상 FTA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 간소화

- AEO MRA를 위한 공동 노력 조항을 통한 통관 우대 혜택 활용 기대
 - AEO 공인 업체에는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통관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베트남은 이를 ‘우선기업제도’로 공식화하여 시행
 - * 우선 기업 공인 시 베트남 관세 법령에 따라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서류 검사 및 물품 검사 면제 혜택 및 세관 서류 사후 제출 혜택 등 제공
 - 금번 개정의정서상 조항 신설로 한-베 양국 간 조속한 AEO MRA 체결 및 한국 AEO 공인 업체의 베트남 우선 기업 혜택 적용을 통한 통관 편의 향유 가능성이 기대됨

라.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위기와 기회의 상존

▣ 투자 매력도 하락에 따른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경쟁력 감소 우려

* 글로벌 최저한세: 글로벌 매출 총액이 7.5억 유로(한화 1조 원) 이상인 대기업 대상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며, 투자 대상국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본사 소재국에 차액 납부 의무

- 베트남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미국, EU 국가 등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예정
 - 현재 베트남 투자 외국 기업의 평균 적용 법인세율은 12.3%이며 일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 미만의 특별 우대 세율 적용을 받고 있음(기본세율 20%)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기존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방법인 ‘높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게 됨
 - 이는 베트남에 신규 투자 및 확대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 베트남 정부, 글로벌 외투 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투자 지원 정책 마련 준비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투자 유치 감소 방지 대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 방안 제시
 - (대상) ①총 투자 규모 12조 동(4억 8,880만 달러) 이상, 연간 20조 동(8억 1,467만 달러) 이상 매출 달성 기업 및 이와 동일한 조건의 첨단 기업 또는 ②외국 투자 기업으로 3조 동(1억 2,220만 달러) 이상 투자한 R&D 프로젝트
 - (지원 방법) 고정자산 구입 비용, 인력 양성 교육 비용, R&D 비용, 첨단 제품 생산 관련 비용 등 투자 비용 지원
 - (시행 기간) 2024년 1월 1일~2029년 1월 1일(5년간)
 - * 2023년 4분기 중 국회 보고 및 별도 시행령 발표 예정
- 2024년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 기존 외국인 투자 지원 인센티브 제도 변경·수정을 고려 중이며, 각 분야별 외국인 투자 제한 기준 역시 명확해질 것
 - 현재 분야별 각종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 혜택을 받는 기업이 소수이며 산업 분야가 중복된다는 의견 반영
 - 또한 일부 외국인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해서 명확한 설립 조건을 명시하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23년 최연소 주석이 선출되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반부패 척결 운동을 지속하고 있음. 이는 정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경영환경에 있어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지나친 소극 행정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음
- (경제) 수출과 수입 모두 부진하여 6.5%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내부보다는 외부의 불확실성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투자는 전년 대비 상승
- (산업) '23년에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전기·전자산업,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의 영향을 받은 소매·유통산업 및 관광산업 등의 선전이 특징적이었으며,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섬유·의류산업의 경우 침체 장기화가 예상됨
- (정책) 정부 입장에서 '23년도의 여러 경제 지표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들의 ESG 활동도 보다 활발해지고 있음

가. 정치 환경

▣ 베트남 정치체제 개관

- 베트남 정치조직 및 특성
 - (정부 형태) 사회주의 공화제(공산당 유일 정당)
 - (공산당) 행정·군사·관료기구를 포함한 국가체제 전반을 통수하는 정치 기구로서 국가와 사회는 물론 정부와 국회 활동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 베트남 내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원 규모는 약 530만 명(2020년 기준)
 - (전당대회) 5년마다 소집되는 베트남 공산당 최대 행사로, 당의 중요 정책 노선을 결정, 신규 당의 규약 인준·채택, 차기 지도부를 구성
 - * 최근 행사인 제13차 전당대회는 '21년 1월에 8일간('21.1.25.~2.2.) 개최
- 베트남 지도부(4대 리더)의 역할
 -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의 정치 서열 1위이며, 공산당 당수에 상응하는 직책으로 당 조직을 총괄 운영
 - (국가주석)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
 - * '23년 3월, 베트남 국회 제4차 특별회기에서 보 반 트영 신임 국가주석(최연소)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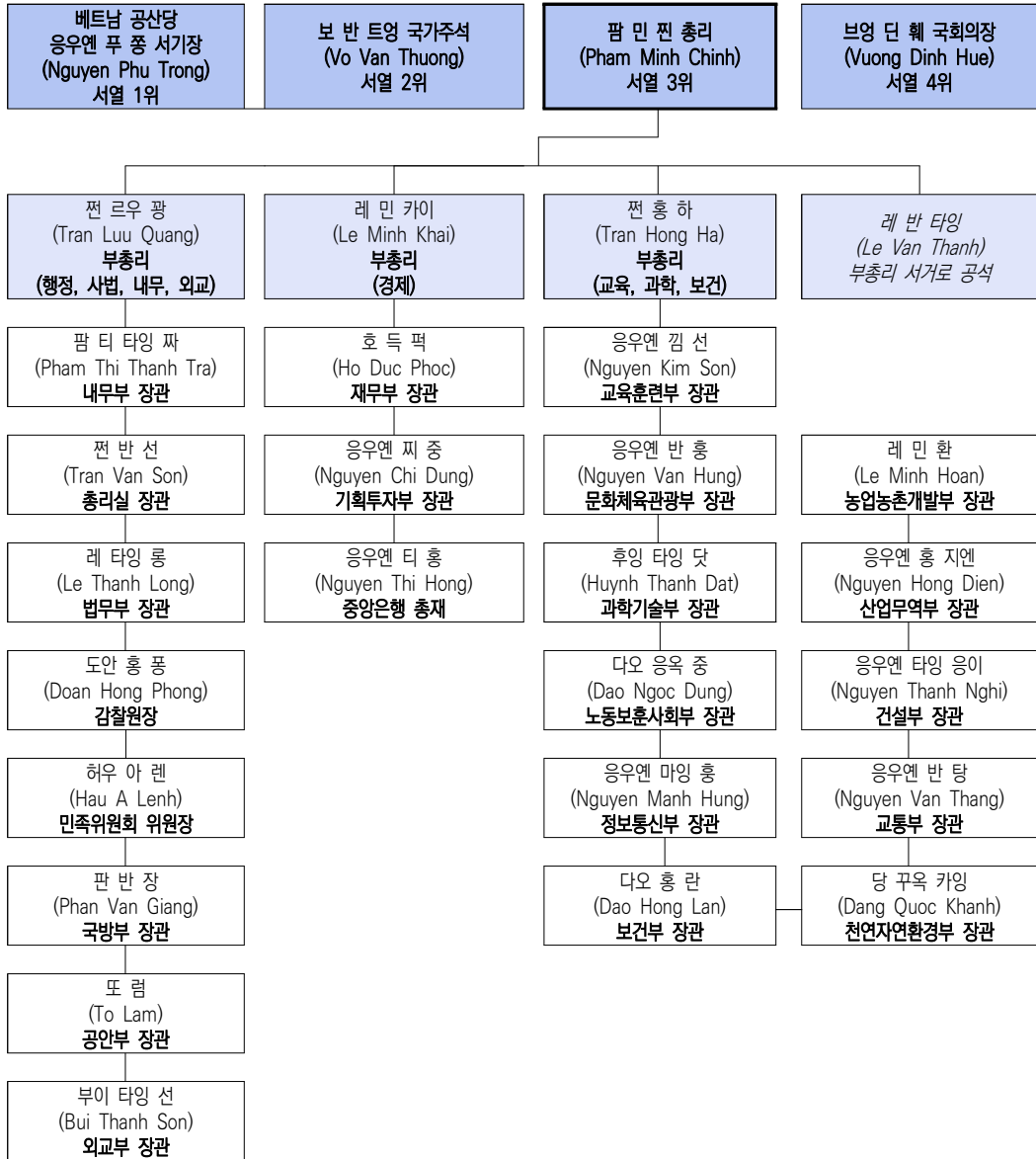
<취임 선서 중인 보 반 트엉 주석>



자료: 아시아투데이('23.3.2.)

- (총리) 정부 수반으로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 지도
- (국회의장) 대내외적인 베트남 국회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수장
- 행정부 - 국회 의결 사항의 최고 집행기관 및 행정기관
 - (구성) 총리, 부총리 4명, 장관급 각료 22명(18개 부처 + 부와 동등한 4개 기관의 장)

〈베트남 정부 부처 조직도(2023년 10월 기준)〉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각 정부 기관명 및 홈페이지 주소〉

국문 기관명	영문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한국의 유관 부처명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https://www.mofa.gov.vn/	외교부
정부청	Government Office	https://vpcp.chinhphu.vn/	국무조정실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MoJ)	http://www.moj.gov.vn/	법무부
민족위원회	Committee for Ethnic Minorities Affairs (CEMA)	http://www.cema.gov.vn/	-
감찰원	Government Inspector	https://thanhtra.gov.vn/	감사원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MoF)	https://mof.gov.vn/	기획재정부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MPI)	https://www.mpi.gov.vn/	기획재정부
베트남 중앙은행	The State Bank of Vietnam(SBV)	https://www.sbv.gov.vn/	한국은행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oD)	http://www.mod.gov.vn/	국방부
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MPS)	http://www.mps.gov.vn/	행정안전부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MoHA)	https://moha.gov.vn/	행정안전부
교육훈련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MoET)	https://moet.gov.vn/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ttps://bvhttdl.gov.vn/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http://www.most.gov.v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	Ministry of Labour - Invalids and Social Affairs(MoLISA)	http://www.molisa.gov.vn/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MIC)	https://mic.gov.v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부	Ministry of Health(MoH)	https://moh.gov.vn/	보건복지부
농업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MARD)	https://www.mard.gov.vn/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MoIT)	http://moit.gov.vn/	산업통상자원부
건설부	Ministry of Construction(MoC)	https://moc.gov.vn/	국토교통부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MoT)	https://www.mt.gov.vn/	국토교통부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MoNRE)	https://monre.gov.vn/	환경부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지방 제도

- 시(市)·성(省)급 63개, 시(城舖·市社 129개)·현(縣 529개)·군(郡 49개)급 등 707개, 시진(市鎮 605개)·사(社 8,295개)·방(坊 1,714개)급 10,614개 등 3단계 행정 계층

- '시·성'급은 5개 중앙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와 58개 성으로 구성
 - * 북부: 동북부(6개 성), 서북부(9개 성), 홍강 델타(하노이, 하이퐁시 및 8개 성)
 - * 중부: 중북부(6개 성), 중남부(다낭시 및 7개 성), 중부 고원 지대(5개 성)
 - * 남부: 동남부(호치민시 및 5개 성), 메콩강 델타(껀터시 및 12개 성)
- 각 '시·성', '시·현·군', '시진·사·방'급별로 당 집행위원회(당), 인민위원회(행정), 인민의회(입법) 운영

• 최근 정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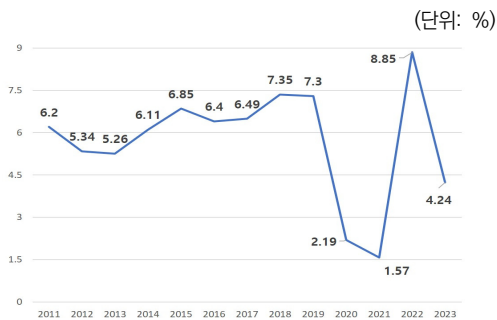
- '23년 10월, '2030년까지의 부패 및 부정행위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가 전략 결의안 (No. 168/NQ-CP)'을 발표하는 등 '21년부터 강화된 반부패 척결 운동 지속
- 부정부패 척결은 진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최근 베트남 공직사회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고, 이는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유의 필요

나. 경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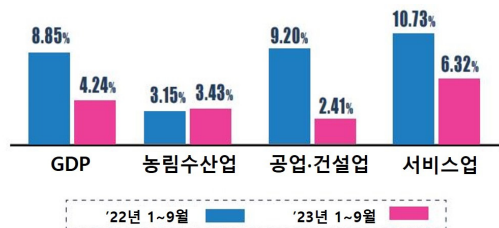
▣ (경제성장)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1~9월 성장률은 4.24%를 기록

-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3.28%),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으며, 1~9월 성장률을 보더라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더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올해 1~9월 농림수산업은 3.43% 성장하며 산업 부문 중 유일하게 2022년도의 성장률(3.15%)을 뛰어넘었으나, 공업·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은 각각 전년 대비 2.41% 및 6.32% 수준 성장하며, 2022년도에 비해 낮은 성장률 기록

〈연도별 베트남 1~9월 GDP 성장률 추이〉



〈최근 2년 1~9월 산업별 GDP 성장률〉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교역 동향) '23년 1~9월 베트남의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하면서 '불황형 흑자' 발생

- 2023년 1~3분기 누계 베트남 교역 규모는 4,963억 달러로 11.1% 감소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생산 및 수출 주문)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됨
-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커 무역수지는 216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
 - 수출액(2,590억 달러)과 수입액(2,373억 달러) 각각 전년 대비 8.5% 및 14% 감소

〈2018~2023년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분기
수출 (증감률)	243,697 (13.3)	264,267 (8.5)	282,629 (7.0)	336,167 (18.9)	371,304 (10.5)	258,970 (-8.5)
수입 (증감률)	236,869 (11.2)	253,393 (7.1)	262,691 (3.7)	332,843 (26.7)	358,902 (7.8)	237,327 (-14.0)
무역수지	6,828	10,874	19,938	3,324	12,403	21,643
교역 (증감률)	480,566 (12.3)	517,660 (7.8)	545,320 (5.3)	669,010 (22.7)	730,206 (9.2)	496,297 (-11.1)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통상) 15개의 FTA 참여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개방적인 무역 환경 조성

- 각종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참여로 우수한 수출입 환경 조성
 - 베트남은 통상 관계 확대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입 국가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 EVFTA(2018년)에 이어 CPTPP(2019년), RCEP(2022년)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 및 다자 협정 참여로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의 제3국 진출 환경 조성

▣ (FDI 투자) 2023년 1~3분기 투자 규모 증가, FDI 기업의 수출입은 감소

- 2023년도 1~3분기 외국인 투자 금액은 총 202억 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
 - 투자 건수는 5,7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큰 폭 증가, 특히 탈중국 제조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유통,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 가속

〈최근 5개년 외국인 총투자액〉

(단위: US\$ 백만,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분기	누적 투자액 (‘88~’23.8)
투자 금액	38,951.7	28,530.1	31,153.3	27,718.1	20,207.6	455,063.6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9.8	-24.9	9.2	-11.0	7.7	-
투자 건수	16,227	9,804	6,520	6,709	5,727	38,379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51.4	-35.0	-33.5	2.8	18.8	-

주: 등록 기준이며 연간 총투자자는 신규 투자, 증액 투자, 주식/지분 투자 포함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3.9.20. 기준)

- 반면, 2023년 1~3분기 베트남 진출 FDI 기업의 수출 및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1%, 14.9% 감소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소비 감소가 현지 진출 FDI 기업의 생산량 및 해외 수출 감소에 큰 영향
 - (2022년) 베트남 진출 FDI 기업 : 베트남 GDP 기여도 20.1%, 베트남 총 수출액의 74%, 총 수입액의 65%, 공업 생산의 50% 차지

〈최근 5개년 베트남 진출 FDI 기업의 수출입 동향〉

(단위: US\$ 억, %)

		2019	2020	2021	2022	2023년 1~3분기
수출	수출액 (증감률)	1,791.2	2,028.9	2,452.2	2,736.3	1,908.1 (-9.1)
	비중	67.7	71.7	72.9	73.7	73.5
수입	수입액 (증감률)	1,446.4	1,690.1	2,182.1	2,328.3	1,528.7 (-14.9)
	비중	57.1	64.3	65.6	65.0	64.2

주: 비중은 베트남의 총 수출(입)액에서 베트남 진출 FDI 기업의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기타) 경제 지표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23년 1~9월 기준 전년 대비 3.19% 상승(베트남 통계총국)
- (외환보유고) '23년 1~9월 기준 전년 대비 3.19% 상승(베트남 통계총국)

- (관리재정수지 적자) '23년 9월 기준 최근 3개년간('21~'23) GDP 대비 3.6%로 기존 설정 한도인 3.7% 내에서 관리 중(베트남 정부)
- (은행 부실채권 비율) 연초 2%에서 7월 말 3.56% 급증 : 대내외 변수로 인해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4년 초부터 점진적 감소 예상(베트남 중앙은행)
- (공공투자 지출 집행률) '23년 9월 기준 계획의 51.38% 완료(베트남 정부)

다. 산업 환경

▣ 전기·전자

- 베트남의 전기·전자 산업은 '22년 기준 전체 산업에서 17.8%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에 정부에서 핵심 산업으로서 육성 중
- 삼성, LG, 폭스콘(Foxconn) 등 외국인 투자기업은 베트남 전기·전자산업의 교역량과 GDP 성장에 매우 큰 기여
 - 베트남 전기·전자 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1/3에 불과하나 이들은 전자제품 총수출액 중 99%의 비율을 차지
 - * 2022년 베트남의 전자제품 총수출은 1,135억이며, 이 중 99%에 달하는 1,124억 달러가 FDI 기업으로부터 발생
 - * 2022년 삼성 베트남은 650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며, 베트남 총수출액(3,713억 달러)의 17.5%, 전자제품 총수출액 대비 57.3% 비중 차지
- 2023년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주문 감소로 인해 베트남의 전기·전자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입도 감소
 - (수출) 2023년 1~3분기 전체 수출액의 약 31.0%를 차지하는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전화기·무선통신기기 품목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30.6%)과 거의 유사
 - (수입) 2023년 1~3분기 기준 베트남 10대 주요 수입 품목 중 전기·전자산업 관련 품목은 2개이며,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의 수입은 1.8% 감소, 전화기·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큰 감소폭(61.7%) 기록

〈베트남의 전기·전자산업 품목의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품목	2022년		2023년 1~3분기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81,884 (22.8)	55,536 (15.6)	62,823 (26.5)	-1.8	41,414 (16.0)	-1.1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21,126 (2.6)	57,994 (15.0)	6,047 (2.5)	-61.7	38,923 (15.0)	-13.7

주: 괄호 안은 해당 기간 전체 수입(출)액 대비 비중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 반도체산업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Technavio)에 따르면, 2022~2027년 연평균 6.12% 성장해 시장 규모가 16.5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숙련 노동력의 부족*, 저부가가치 반도체 생산, 낮은 현지화율 등이 베트남 반도체산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23년 10월 현재 5,000명으로 추산되나, 향후 5년간 5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

- 베트남 정부는 고관세율과 자국 기업 대상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동차 제조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최근 자동차산업 개발 전략 및 방향은 결정문 Decision No. 1168/QD-TTg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련 시행 정책은 Decision No. 229/QD-TTg에 명기돼 있음
- 대부분의 일반 차량은 WTO 회원국에 대한 70%의 MFN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품목의 경우 FTA 양허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아 적용 실익이 없어 한국의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자동차 품목 관세율표〉

HS 코드	설명	관세율 (MFN 세율)	관세율 (FTA 세율)
8701	트랙터	0~30%	0~24%
8702	승객용의 10인승 이상 차량	- 공항용: 5% - 일반: 70%	공항용만 0% 적용, 그 외 세율 혜택 없음
8703	승객용의 9인승 이하 차량	- 앰블런스, 장례용, 죄인 호송용 차: 15~20% - 일반: 70%	특수용도 차량 일부 0% 적용, 그 외 FTA 세율 혜택 없음
8704	화물차량	- 45톤 초과: 0% - 24톤 초과 45톤 이하: 10~25% - 24톤 이하: 50~70%	일부 화물차량 배기량에 따라 혜택 있는 경우 있음 (세부 세율표 확인 필요)
8705	특수용도 차량(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등)	0~15%	FTA 세율 0%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 시장 규모

- 베트남 자동차제조업체협회(VAMA) 회원사 기준 '23년 3분기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는 총 72,602대로 전년 대비 23.2% 감소했으며, 1~3분기 누계 기준으로는 209,929대로 29.2% 감소
- * 베트남 자동차산업의 경우 주로 VAMA 회원 기업의 판매 통계와 비회원사인 현대 탄콩(TC Motors, 현대자동차 합작법인) 및 빈패스트(Vinfast) 판매 통계를 합산하여 시장 규모·동향 파악
- 고금리와 당국의 불안정한 가격 정책으로 인해 '23년도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나, '24년에는 금리 인하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판매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3분기 베트남 자동차 시장 판매 규모〉

(단위: 대, %)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증감률)	2022년 1~3분기	2023년 1~3분기 (증감률)
VAMA 회원사	94,563	72,602 (-23.2)	296,403	209,929 (-29.2)
현대 탄콩	19,921	13,157 (-34.0)	56,320	41,168 (-26.9)
빈패스트	153	10,027 (6,453.6)	-	21,342
총계	114,637	95,786 (-16.4)	-	272,439

주: 빈패스트의 경우 2022년 1~2분기 판매 실적 자료 없음
자료: VAMA, 현대 탄콩, 빈패스트,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판매 대수 기준, 현대, 도요타, 포드 등이 현재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제조업체별 2023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

(단위: 대, %)

순위	기업명	총 판매 대수	비중
1	현대 탄콩(Hyundai Thành Công)	28,011	15.8
2	도요타(Toyota)	26,637	15.1
3	포드(Ford)	17,423	9.8
4	기아(Thaco KIA)	17,241	9.7
5	마쯔다(Mazda)	14,089	8.0
6	미쓰비시(Mitsubishi)	12,847	7.3
7	빈패스트(Vinfast)	11,638	6.6
8	혼다(Honda)	9,488	5.4
-	기타	27,058	22.4
-	총계	176,976	100

주: 총계는 VAMA 회원사, 현대 탄콩, 빈패스트 수치의 총합이며, 반올림으로 인해 비중의 합이 1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VAMA)

-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상장 베트남 기업, 빈패스트
 -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은 2023년 8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베트남 최초의 토종 자동차 제조업체 빈패스트(VinFast)가 주도
 - (배터리) 해외 배터리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공급

〈빈패스트의 배터리(EV) 관련 파트너십 목록〉

체결 시기	기업명	국가	공급 내용
2021년 8월	Gotion High-Tech	중국	LFP 배터리
2022년 7월	ProLogium	대만	전고체 배터리
2022년 9월	SKIET Group	한국	배터리 분리막
2022년 12월	Cavico Laos Mining	베트남	니켈 원자재
2022년 4월	CATL	중국	Cell-to-chassis(CTC) 배터리
2022년 4월	StoreDot	이스라엘	급속 충전(XFC) 배터리 셀
2023년 4월	Li-Cycle	캐나다	배터리 재활용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전기버스) 2019년,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및 껀터 등 5개 지역 내 전기버스 운영을 위해 2019년 빈버스(VinBus)를 설립하였으며, 하노이와 호치민에서는 각각 2021년, 2022년부터 운행 중
 - * 베트남 정부는 2050년까지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기택시) 2023년 4월, 빈그룹의 자회사인 GSM(Green and Smart Mobility Join Stock Company)은 빈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인 빈패스트의 전기차를 활용한 택시 서비스 'Xanh SM'을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
- (충전소) 2023년에 베트남 전역 3,000개 충전소에 충전 포트 15만 개를 확충 예정
 - * 도심에는 완속충전기와 표준충전기(11kWh 또는 30kWh)를 설치하고, 도시 외곽에는 급속충전기와 초고속충전기(60kWh 또는 250kWh)를 설치할 계획

〈빈패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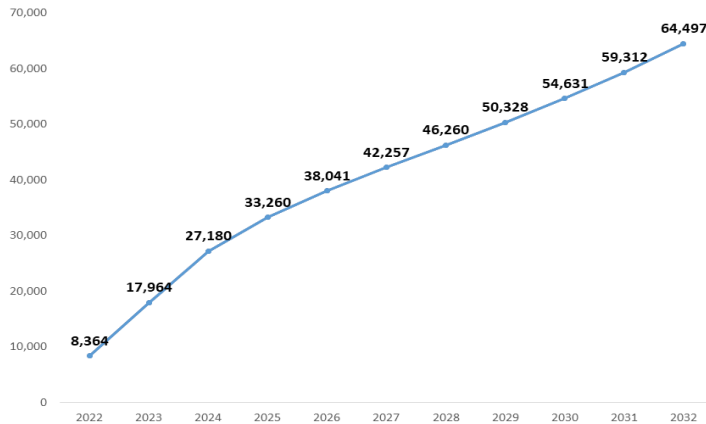


자료: 연합뉴스

- 베트남 전기차 시장 전망
 - 글로벌 컨설팅사(BMI Research)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베트남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25.8%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2~2032년 베트남 전기차 판매 전망〉

(단위: 대)



자료: BMI Research

- 베트남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개편, 투자 유치, 충전소 구축 및 관련 신기술 도입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소매 및 유통산업

- 정책 및 규제
 - 100% 외국 투자 자본으로 유통업체 설립이 가능하나 현지 합작법인이 유리
 - *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여 2009년부터 외국계 유통업체의 단독 투자가 가능하며, 100% 외국 투자 자본으로 베트남 내에 유통업체 설립이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운영에 있어 인허가 절차 등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현지 업체와의 합작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베트남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베트남 시장에 유통을 위한 소매업 및 소매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시의 인민위원회 산업통상국(DoIT)으로부터 영업허가서(BL) 및 소매점포 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 가능
 - * 발급까지는 통상 6~8주기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시장 규모 및 향후 전망
 - 베트남의 재화 소매시장*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성장 중
 - * 베트남 통계총국은 재화 판매(retail sales of consumer goods), 숙박업 및 식음료업, 여행업, 기타 서비스업을 종합하여 전체 소매시장 매출 규모(retail sales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를 측정

〈2018~2023년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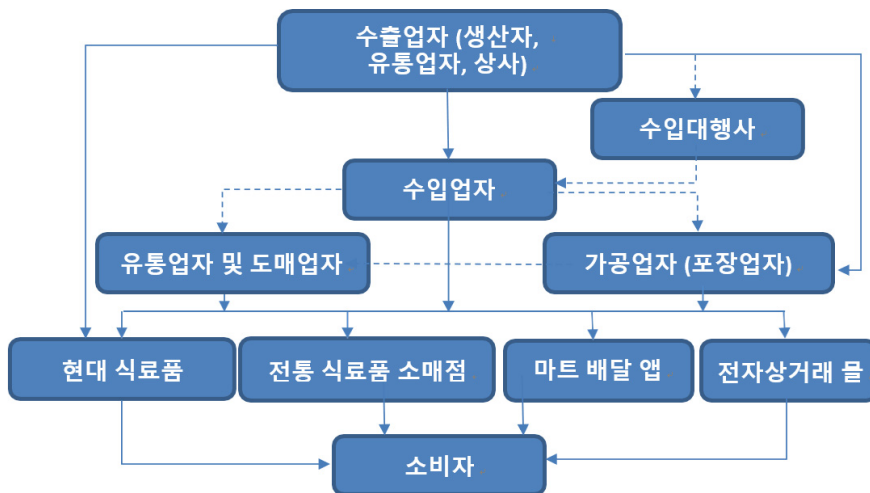
(단위: US\$ 십억,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9월
소매시장 (재화만)	134.9 (12.4)	152.8 (13.3)	163.1 (6.8)	161.3 (-1.2)	182.7 (13.3)	145.8 (8.4)
전체 소매시장 (재화 및 서비스)	179.4 (11.7)	201.3 (12.2)	206.5 (2.6)	195.5 (-5.3)	231.8 (18.6)	186.4 (9.7)
재화 소매시장의 구성비	75.2	75.9	79.0	82.5	78.8	78.2

주: 괄호 안은 증감률이며, 원자료(소매시장 매출 규모)가 현지 통화로 되어 있어 '23.10.31. 고시환율(1USD = 24,087VND)을 일괄 적용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Mo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 전체 소매시장 규모는 약 2,467억 달러로 예상되며, 5년 뒤인 2028년에는 연평균 12.1% 성장해 약 4,3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현지 경제 월간지(Vietnam Economic Times)에 따르면, 베트남 소매시장의 잠재력은 1억 명의 대규모 인구, 소득 향상, 안정적인 경제 발전, 도시화에 따른 최신식 유통 채널의 성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통구조
 - 대부분의 소매 제품은 수입업체,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 및 유통됨
 - 최근 일부 대형 식료품 체인점은 신선식품(과일, 고기, 해산물 등)과 무알코올 음료를 직수입하기 시작

〈베트남의 소매 유통구조〉



자료: USDA Gain,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주요 기업

-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대형마트와 편의점·미니마트를 양측으로 소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업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 외국인 소매 유통기업 현황(2023년 3월 기준)〉

(단위: 개)

기업명	국가명	세부 구분(특이사항)	진출 시점	매장 수	분야
Parkson	말레이시아	-	2005	1	백화점
Circle K	미국	-	2008	423	편의점
Guardian	싱가포르	드럭스토어	2011	109	헬스, 미용
7-Eleven	일본	-	2017	80	편의점
AEON		AEON Mall	2013	6	쇼핑몰
		Mini Stop	2011	143	편의점
		-	-	1	대형마트
		AEON Citimart (’14년, Citimart 지분 49% 인수)	1994	22	슈퍼마켓
Fuji Mart			Fuji Mart, Sumitomo와 BRG그룹과 합작	2018	3
Takashimaya		-	2017	1	백화점
Bic C (Tops Market)	태국	’15년, Central Group이 인수 (10.5억 달러)	1998	11	대형마트
B’s Mart		-	2013	78	편의점
MM Mega Market		’16년, TCC Group 인수, Metro에서 상호 변경	2002	21	슈퍼마켓
Robins		-	2014	2	백화점
GS25	한국	Son Kim 그룹과 합작	2018	201	편의점
E-Mart		’20년, 탄궁 그룹이 신세계로부터 프랜차이즈 운영권 인수	2016	1	대형마트
Lotte		Lotte Mart	2008	15	대형마트
		Lotte Department Store	2014	2	백화점
		Lotte Duty Free	2017	4	면세점
Watson	홍콩	-	2019	7	헬스, 미용

주: AEON에 한하여 ’23년 9월 기준

자료: Q&Me Vietnam Retails Store Statistics, Vietnam Economics Times(9월호)

〈베트남 편의점 및 미니마트 현황(2023년 3월 기준)〉

(단위: 개)

브랜드명	국가명	호치민	하노이	기타 지역	총계
Circle K	미국	204	160	59	423
Cheers	싱가포르	31	-	3	34
7 Eleven	일본	80	-	-	80
Family Mart	일본	112	-	34	146
Mini Stop	일본	139	-	4	143
B's Mart	태국	78	-	-	78
GS25	한국	153	-	48	201
K-Market	한국	24	33	5	62
Bac Tom	베트남	-	16	-	16
Bach Hoa Xanh	베트남	502	-	1,208	1,710
Co.op Food	베트남	296	64	35	395
Hapro foods	베트남	3	56	4	63
Satrafoods	베트남	223	3	-	226
Soi bien	베트남	-	38	-	38
T-Mart	베트남	12	43	1	56
Winmart+	베트남	500	800	1,749	3,049
총계	-	2,357	1,213	3,150	6,720

자료: Q&Me Vietnam Market Research

- 최근 동향 ① :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약진
 -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급·배송업체 및 금융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엔데믹 시기에도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
 - 웹사이트, 앱, 소셜미디어 등 여러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료 배송, 비대면 배달, 할인 등 다양한 판촉전을 활용하며 노력 중

〈베트남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호출 배달 서비스 앱〉

전자상거래 플랫폼	호출 배달 서비스 앱
Foody(www.foody.vn)	AhaMove(https://ahamove.com/)
Lazada(www.lazada.vn)	Baemin(https://baemin.vn)
Sendo(www.sendo.vn)	Be(https://be.com.vn)
Shopee(www.shopee.vn)	Gojek(www.gojek.com)
Tiki(www.tiki.vn)	Grab Food(https://food.grab.com)
Fado(www.fado.com.vn)	GrabMart(www.grab.com/vn/mart/)
-	Loship(https://loship.vn)
-	Capichi Delivery(capichiapp.com)
-	Delivery K(www.deliveryk.com)
-	Now(www.now.vn)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최근 동향 ② : 외국계 대형 업체 중심으로 베트남 유통 시장의 경쟁 심화
 - 일본의 투자를 받은 루프 쇼핑센터(Loop Shopping Center, 舊 인도차이나 플라자 하노이)의 리노베이션 재개관('23년 6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상업복합단지 롯데몰 서호* 하노이 개관('23년 9월) 등
 - * 쇼핑몰, 실내 수족관, 영화관, 대형 소매점, 영화관, 5성급 호텔 및 아파트를 포함한 222,000㎡ 면적(지상 5층 및 지하 2층 등 7층 규모)의 초대형 상업복합단지 200개 이상의 유명 브랜드 입점
 - (한국) 롯데는 롯데몰 서호 프로젝트에 6억 달러를 투자
 - (일본) AEON*은 하노이에 3~4개의 신규 쇼핑몰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 16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진 예정
 - * AEON Vietnam, '23년 9월 현재 6개 쇼핑몰, 1개 대형마트, 22개 슈퍼마켓, 174개 편의점 운영
 - (태국) 최대 소매업체 Central Retail은 2023~2027년 동안 베트남에 14억 5,000만 달러 추가 투자 예정

〈롯데몰 서호 하노이(Lotte Mall West Lake Hanoi) 전경〉



자료: 연합뉴스

▣ 섬유·의류

- 정책 및 규제
 - 베트남 정부는 2014년 4월 '2030 베트남 섬유산업 발전방안(Decision No. 3218/QD-BCT)'을 발표
 - 해당 문서에서는 주요 발전 방안으로 ①고부가가치 전환, ②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③숙련노동자 육성, ④해외 투자 유치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2030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세부 목표〉

		2020년	2030년
지표	수출액	360억~380억 달러	640억~670억 달러
	제조업 대비 비중	13~14%	9~10%
	노동인력	330만 명	440만 명
주요 생산품	면섬유	15,000톤	30,000톤
	섬유, 합성섬유	700,000톤	1,500,000톤
	방적사	1,300,000톤	2,200,000톤
	직물	20억㎡	45억㎡
	봉제제품	60억㎡	90억㎡
	현지화율	65%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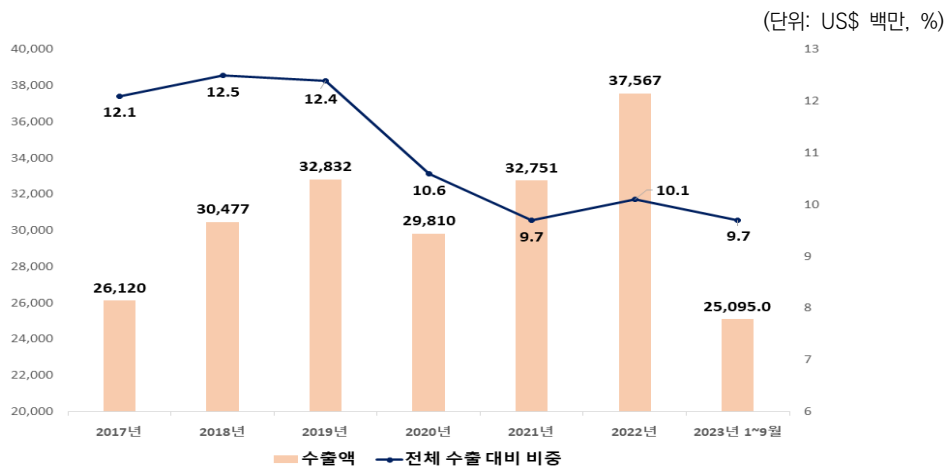
자료: Decision No. 3218/QD-BCT

- 2022년 12월, 총리는 상기 문서의 연장선상에서 '2035년 섬유·의류산업 비전(Decision No. 1643/QD-TTg)'을 승인
 - *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베트남의 섬유·의류산업 부진에도 국가적 차원의 발전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섬유·의류제품 수출 동향

-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대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2017~2023년 베트남 섬유·의류 품목 수출 동향〉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ASEAN 섬유산업연맹(AFTEX)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 기준 섬유 및 의류 수출에서 중국,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3위 규모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원단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사 수입이 2023년 4월 누계 기준 약 680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
 - 2023년 3분기 누계 기준 베트남의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의 부진〉

(단위: US\$ 백만, %, %p)

구분	2022	2023	비고
원사 수입	-	680 (-24.9)	'23년 4월 기준
섬유·의류제품 수출액	37,567	25,095 (-13.6)	'23년 9월 기준
총수출액 대비 섬유·의류 제품 수출액의 비중	10.1	9.7	'23년 9월 기준
직물·의류 제조 부문의 산업생산지수(IIP)	100	94	'23년 5월 기준

주: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IIP)는 전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그 해의 생산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지수 (단위: %p)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 통계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산업 침체 주요 원인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의류제품의 과잉 재고 현상, 신규 주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힘
 - 베트남 정부 주도 최저임금 상승*,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투입 비용 증가 및 이에 따른 'Made in Vietnam'의 가격 경쟁력 약화
 - * 베트남은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이 매년 5~7% 상승. 2022년 베트남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함. 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약 6%
 - 2023년 말 시행 예정인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에 의한 ESG 관련 요건 의무화, 세계 1위 섬유·의류 수출국인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2024년에도 침체 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ICT

- 베트남의 ICT산업 육성 전략, Make in Vietnam
 - ‘Make in Vietnam’은 베트남의 ICT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ICT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국가 ICT산업 진흥 슬로건
 - 베트남 정부는 ‘Make in Vietnam’을 통해 FDI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 및 생산 기지로 사용되던 수동적인 베트남을 ‘Made in Vietnam’으로 구분하고 ‘Make in Vietnam’처럼 능동적인 베트남을 ICT산업 발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베트남 정보통신산업(ICT) 목표(2022~2025년)〉

(단위: US\$ 억, %)

연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통신산업의 총 수익	193	210	229	250
GDP 기여도	4.9	5	5.1	5.2
5G 적용 범위(인구 비율)	8	14	20	25
광섬유 통신 가입 가구 비율	75	84	93	100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인구 비율)	85	90	95	100
인터넷 사용자(인구 비율)	74	76	78	80
IPv6 사용자(인구 비율)	52	57	65	70~80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목표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목표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결정문(Decision No. 749/QD-TTg)을 통해 국가 다방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8대 우선 개발 분야 선정
 - 4가지 주요 목표 설정 :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글로벌 역량을 가진 디지털 기술 기업 육성
 - 개발 목표는 3개 분야(정부, 경제, 사회)로 구분돼 세부 지표별로 2025년 및 2030년까지의 목표가 수립됨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 개요〉

구분		2025년 목표	2030년 목표
정부	레벨 4 공공 서비스 온라인화 및 디지털 기기 사용 최적화	서비스 80%	서비스 100%
	전자정부발전지수 순위	70	50
경제	GDP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	20% (‘22년: 14.26%)	30%
	각 산업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	10% 이상	20% 이상
	연간 생산성 증가률	7%	8%
	ICT 발전지수(IDI) 순위	50	30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순위	50	30
	글로벌 혁신지수(GII) 순위	35	30
사회	광섬유 인터넷 보급	가계의 80%	전국적 보급
	4G/5G 서비스 보급	4G/5G, 스마트폰 전국적 보급	5G 서비스 전국적 보급
	온라인 예금계좌 보급률	인구의 50%	인구의 80%
	글로벌 사이버안전지수(GCI) 순위	40위	30위

자료: Decision No. 749/QĐ-TTg(2020.6.3.)

-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혁신 우선 분야로 ▲헬스케어 ▲교육 ▲금융 ▲농업 ▲교통 및 물류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환경 ▲산업 제조 등 8개 부문을 선정해 중점 육성할 계획

〈베트남 디지털 혁신 우선 개발 분야 및 개발계획〉

분야	세부 개발 내용
헬스케어	- 원격 의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 및 의료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발 - 의료 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행정 개혁을 촉진
교육	- 원격 학습 및 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리 - 교육 및 학습 활동에 디지털 기술 적용, 자료 및 교과서 디지털화 - 모든 교육기관은 원격 학습 및 교육 활동 구축, 커리큘럼의 최소 20%는 실험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
금융	- 전자 금융을 개발하고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 - 세금, 관세, 재무 및 증권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프로세스를 개혁 및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 은행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 핀테크 회사 및 지불 중개자와의 협력을 촉진해 국가 금융 통합을 촉진 - 모바일 결제 및 P2P 대출과 같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은행의 접근성 강화

분야	세부 개발 내용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에 중점을 두고 첨단 농업을 촉진하고 경제에서 디지털 농업의 비중을 향상 - 토지,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 대규모 농업 정보 시스템 개발에 주력 - 농업 활동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 모니터링 및 관측 네트워크 구축 - 제품 공급망과 원산지를 관리하고 감독해 적시성, 투명성, 정확성, 식품 위생 및 안전 보장
교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및 국도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개발 - 물류 인프라 전환(항만, 내륙항, 공항, 철도, 창고 등) - 교통 인프라 관리, 상업용 차량, 차량 운전자 관리, 디지털 문서를 통한 차량 등록 및 관리, 디지털 차량 운전 면허증 발급 및 관리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산업과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 최적화 및 자동화 - 디지털 전기계량기 연결을 통한 전력망 문제 식별, 전력 절약, 전기 에너지 손실 감지
천연자원 및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및 기타 분야(국가 지리, 천연자원 및 환경 모니터링, 생물 다양성, 폐기물 출처, 원격 감지, 바다 및 섬, 기후변화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시스템 개발
산업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전략 및 조직 구조, 스마트 공장 구축, 스마트 운영, 스마트 제품 및 데이터 관련 서비스 개발, 근로자의 디지털 기술 향상

자료: Decision No. 749/QD-TTg(2020.6.3.)

• 시장 규모

-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베트남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1억 100만 명이며 인터넷 가입률은 70%
- ICT산업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3년의 경우 7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2020~2023년 베트남 ICT산업의 매출 및 GDP 기여도〉

(단위: US\$ 억,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7월
매출액	1,247	1,362	1,480	729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9.2	8.7	-7.1
GDP 기여 규모(금액)	30.8	32.7	3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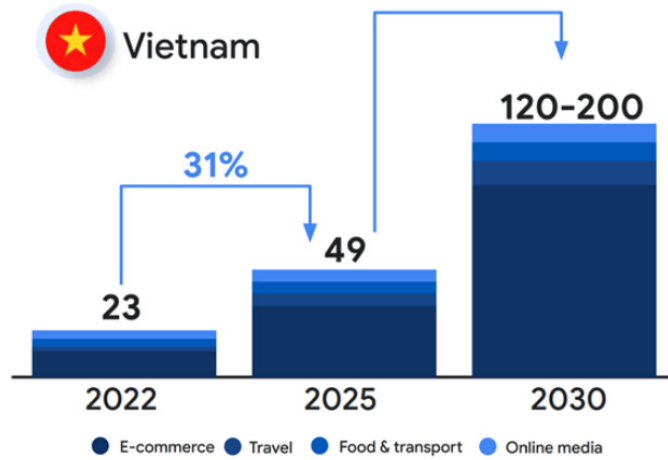
자료: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속

- 2022 e-Conomy SEA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총매출액(GMV)*은 2022년 기준 230억 달러를 기록
 - * 총매출액(GMV)는 “Gross Merchandise Volume” 혹은 “Gross Merchandise Value”의 약자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총매출액 또는 총상품판매량을 지칭
- 2022~2025년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31%, 2025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총 490억 달러에 도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2022~2030년 베트남 디지털 경제 총매출액(GMV) 및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단위: US\$ 십억, %)



주: 2025년, 2030년 GMV는 전망치
 자료: e-Conomy SEA 2022

- 연평균 성장률 9%에 달하는 베트남의 게임산업 현황 및 전망
 - (현황) '베트남 게임 발전 연합'의 보고서('23년 10월)에 따르면, 베트남 게임 산업은 5,46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22년 6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전망) 현재 인도네시아(18억 달러), 태국(10억 달러), 말레이시아(9억 달러), 필리핀(8.5억 달러)에 뒤처져 있지만, 연평균 9%의 성장률로 아세안 지역 평균인 8.2%를 상회하며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정책) 정보통신부는 게임산업 매출을 10억 달러로 늘리기 위해 현재 게임 기업 수를 30개에서 최대 150개로 늘리고, 400개의 게임 스타트업 육성 및 유치, 외국인 투자자/해외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 협력 기회 모색 등 지원 예정

▣ 관광

- 정책 및 규제
 - 베트남 관광법(09/2017/QH14) 및 관련 시행령(168/2017/ND-CP, 06/2017/TT-BVHTTDL)에서 관광에 대한 정의, 관광 자원, 관광 활동 및 비즈니스, 관광 개발 방향, 관광의 국가 관리, 관광 부문의 공공 행정 절차 등 기본 사항을 규정

-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의결서(08-NQ/TW)를 통해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발전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관광개발기금 운용(49/QD-TTg)과 정보기술(IT)의 관광산업 적용정책(1671/QD-TTg)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함
- 특히 베트남 정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0년 주기로 국가관광개발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21년 1월 ▲관광산업을 주요 경제 부문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지향 ▲국가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개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관광 ▲국내 및 국제 관광의 동시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년까지의 국가관광 개발전략(147/QD-TTG)'을 승인함

<베트남 국가관광개발 10개년 전략(2021~2030년) 주요 내용>

<p>5개년 계량 목표 (~2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관광 수입: 1,700조~1800조 동(770억~800억 달러) 달성 - 매출 연평균 성장률: 13~14% - GDP 기여율: 12~14% - 550만~6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직접 일자리 200만 개) - 관광객 1억 5,500만 명 유치(외국인 3,500만 명/내국인 1억 2,000만 명) - 관광경쟁력지수(TTCI) 세계 50위, 동남아 3위 달성
<p>10개년 계량 목표 (~20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관광 수입: 3,100조~3,200조 동(1,300억~1,350억 달러) 달성 - 매출 연평균 성장률: 11~12% - GDP 기여율: 15~17% - 8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직접 일자리 300만 개) - 관광객 2억 1,000만 명 유치(외국인 5,000만 명/ 내국인 1억 6,000만 명) - 관광경쟁력지수(TTCI) 세계 30위 달성
<p>개발 방향 및 목표에 대한 솔루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 개발에 대한 인식의 지속적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서비스 산업이자 경제 부문을 선도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완전한 인식 확보 - 관광객에 대한 문명화되고 친근한 행동으로 사람, 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좋은 이미지와 환경을 보호하여 베트남 관광의 명성, 브랜드 및 매력 향상에 기여 (2) 관광 개발 법률 제도 및 정책의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발전을 위한 법률 제도 및 정책의 수정 및 완성 - 특히, 관광 클러스터, 국가 관광 지역, 잠재적 관광 지역 개발에 대한 토지, 세금 및 신용에 관한 인센티브 정책 공포 - 외국인 관광객의 이민 및 여행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 국내 및 국제 항공사가 베트남을 주요 및 잠재적 관광 시장으로 직접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비행 노선을 개설하도록 촉진 - 민관 협력 및 통합 거버넌스 모델 추진 (3) 관광 기반시설 및 기술시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공항, 항구, 철도를 포함한 교통 인프라에 중점을 둔 동시식 및 현대식 인프라 개발 - 디지털 변혁을 위한 ICT 인프라 개발; 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술 시설, 관광 숙박 시설, 고급 리조트 단지, 엔터테인먼트 시설 개발 - 대규모의 현대적인 전시 및 컨벤션 센터, 쇼핑몰,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 개발 (4) 관광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관리, 기업 관리, 고위 관리 및 숙련 노동에 중점을 둔 전문 기술의 관광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양과 질을 모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방법의 다양화: 관광직업 인력, 특히 관광 가이드를 위한 전문기술 훈련,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 및 지식 교육 훈련 (5) 관광자원시장의 발전 및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지출 및 장기 체류로 성장 잠재력이 큰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 관광 자원 시장 다변화; 중동, 남유럽, 남아메리카, 인도 등 새로운 잠재적 시장 개발에 주의 필요 -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 (휴식, 관광, 순례, 축제, 헬스케어, 문화/역사/생태 탐방, 생활체험, 문화교류) (6) 관광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용 지역/천연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다양성, 독특성 및 높은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품을 개발 - 해양·도서 관광, 해상 스포츠·오락 관광, 국가 문화유산 관광, 농업·농촌 관광, 생태 관광, 어드벤처 레포츠 관광, 도시 관광 등 관광상품 우선 개발 (7) 홍보활동 활성화 관광 브랜딩; 국제 협력 및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홍보(예: 디지털 기술 적용,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홍보, 해외 베트남 커뮤니티 지원 등) - 지역/지역 관광 브랜딩 및 관광상품 브랜딩을 기반으로 국가 관광 브랜드 구축 - 지역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 - 관광 전문가에 대한 ASEAN 상호인정협정의 효과적인 이행; 경험 교류, 기술 지원, 투자 유치,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해외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 과학기술의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의 디지털 변혁 가속화 - 스마트 관광 생태계 개발 - 관광산업에 디지털/그린/클린 기술 적용 -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계된 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자 거래 및 비현금 결제 장려 (9) 관광에 대한 국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중앙에서 지방 관리 기관으로 강화 -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
--	---

자료: 베트남 결정서 제147/QD-TTg호,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2023년 8월, 완화된 비자 정책 발표
 - 베트남 정부는 '23년 8월 '모든 국가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전자비자로 출입국할 수 있는 국경 관문 목록'에 관한 결의안(32/NQ-CP)의 개정 결의안(127/NQ-CP)을 발표
 - 무비자 대상국 및 기간 확대, 전자비자 대상국 및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 및 유입 증대가 전망됨
 - *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에 따르면, 완화된 비자정책 내용 발표 직후 2주간(8. 15.~31.) 플랫폼 내 베트남 여행 관련 검색량은 종전 대비 33% 증가

〈베트남 신 비자정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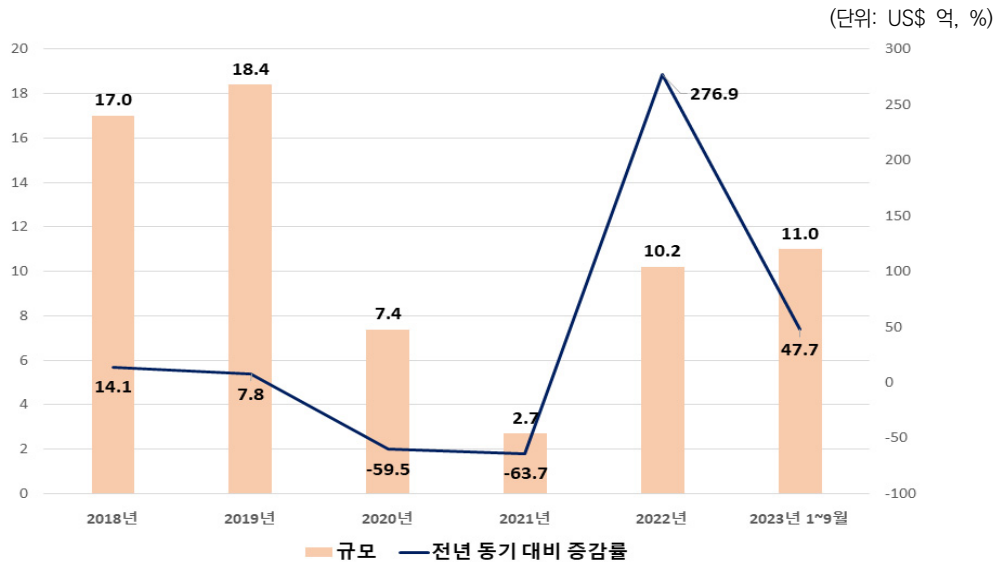
	구 비자정책 (2022년 3월~2023년 8월 14일)	신 비자정책 (2023년 8월 15일~)
무비자 대상국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 21일: 필리핀 - 15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 14일: 브루나이,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일: 칠레, 파나마 - 45일: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 30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21일: 필리핀 - 14일: 브루나이, 미얀마
전자비자 대상국	80개국	200개국
전자비자 기간	최장 30일	최장 90일
전자비자 형태	단수	단·복수

자료: 베트남 공안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산업 규모

- 관광 산업 매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1~9월 누계 매출은 11억 달러로 '22년 전체 매출(10.2억 달러)을 초과

〈2018~2023년 베트남 관광산업 규모 추이〉



주: 괄호 안은 증감률이며, '23.10.31. 고시환율(1USD = 24,087VND) 일괄 적용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 2023년 1~3분기 외국인 관광객 유입 동향
 - 2023년 1~9월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889만 명으로, 이는 2023년 연간 목표치인 800만 명을 넘어선 수치
 - * 동기간 258.4만 명이 방문한 한국이 방문국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중국(112.2만), 대만(74.5만) 순으로 많았음
 -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69%에 달하는 수준으로 관광산업이 점차 회복 중인 것으로 판단됨
 - * 관광총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9월 베트남-일본 및 베트남-한국 간 항공 여행은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까지만 회복됨

〈최근 6년간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 동향〉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	15,497,791	18,008,591	383,730	157,269	3,661,200	8,885,400
전년 대비 증감률	19.9	16.2	-97.9	-59.0	2,228.0	374.4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23.9.29. 기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산업 규모 및 전망
 -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TAB)에 따르면, 새로운 비자정책으로 인해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 베트남의 유치 목표인 800만 명을 넘어 2019년의 66.6%인 약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세계관광기구(UNWTO) 및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에 따르면, 새로운 비자 정책은 베트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5~25%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최초 미쉐린 가이드 발표
 - 미쉐린 1스타 음식점 4개(하노이 3개, 호치민 1개)를 포함하여 총 103개의 레스토랑이 베트남 최초의 미쉐린 가이드를 통해 추천됨
 - 이번 발표는 베트남의 요리와 관광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미쉐린 1스타 베트남 식당〉

식당명	종류	지역	주소
Anan Saigon Restaurant	베트남식	호치민	No. 89, Ton That Dam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GIA Restaurant	베트남식	하노이	No. 61, Van Mieu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Hibana by Koki	일식	하노이	No. 11, Le Phuong Hieu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Vietnam
Tam Vi Restaurant	베트남식	하노이	No. 4B, Yen The Street, Van Mieu Ward,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자료: 미쉐린 가이드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프로젝트

-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지속으로, '24년 건설 부문 7.1%, 인프라 부문 6.7% 성장 전망
- (건설) 교통 인프라 부문이 건설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도로·교량 및 철도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24~'32년 연평균 7.1% 성장률로 향후 교통 인프라 시장 성장 주도 전망
 - '21~'25년 사이에 교통 인프라 개발 총자본은 약 470조 동(약 204억 달러) 예상, 이는 '16~'20년 기간의 약 3배 규모

〈연도별 건설 및 인프라 시장 성장 전망〉

구분	'23(e)	'24(e)	'25(e)	'26(e)	'27(e)
전체	7.1	6.9	6.1	6.1	6.1
도로·교량	7.5	7.6	6.6	6.6	6.7
철도	7.2	5.8	5.4	5.6	5.7
공항	3.8	4.2	3.9	3.8	3.9
항만·항구·수로	6.7	7.1	5.4	5.5	4.9

- (전력) 석탄·수력발전 의존도가 전체의 51.6%('22 기준), 전력 수요는 지속 증가
 - 전력원별 생산 비중은 석탄화력(32.5%), 수력(29%), 신재생(26.4%) 순
 - 제조업 중심 경제발전에 의해 전력 생산 및 소비는 지속 증가 중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은 증가, 수력·석탄화력 발전은 감소 예상

〈'22년 베트남 발전 형태별 비중〉

자료: 베트남 산업부(MOIT)

〈'22~'50년 베트남 전력원 비율 목표〉

구분	수력	석탄화력	가스화력	태양광	풍력	기타
2022년	28%	33%	11%	5%	21%	2%
2030년	20%	20%	25%	19%	9%	7%
2050년	7%	0%	15%	29%	3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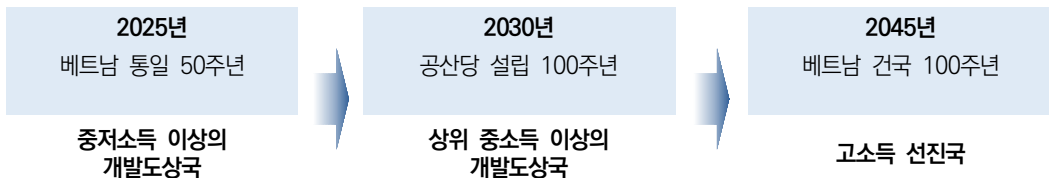
자료: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 (전력) 수력·석탄발전 위주의 전통적 전력 시스템에서 탈피, 신재생(풍력·태양광)에너지로의 전환 박차

라. 정책·규제 환경

▣ 베트남 1개년, 5개년, 10개년 사회경제개발 비전, 목표 및 성장전략

- 2021년 1월 말 제13회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중장기 발전 목표 및 계획 발표
 -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 비전* 선포와 동시에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승인
- *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000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 ** 베트남 정부는 10년 단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목표 제시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분야별 주요 목표〉

분야	주요 내용
거시경제	▶ 연평균 GDP 성장률 7%,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등
산업	▶ 혁신·디지털 전환,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역	▶ FTA 활용을 통한 수출입 시장 다양화, WTO 질서 준수
외교	▶ 다자외교 증진 및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자료: 베트남 정부

-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의 목표 및 달성방안
 - (경제 목표) 연평균 GDP 성장률 7% 시현, '30년 1인당 GDP 7,500달러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 1~1.5% 감소 등의 목표 수립
 - (3대 전략적 동력) ▲글로벌 경제 편입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선별적 FDI 유치 및 국영기업 민영화), ▲고급 인력 양성, ▲교통·에너지·IT 인프라 확충
 - (주요 과제)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디지털 전환 촉진, 외투 기업의 R&D, 혁신센터 설립 장려, 교육기관 품질 개선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국유 기업 구조조정·매각 등 효율 개선, 인프라 개발 및 해양경제 개발 등
-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 베트남 정부는 향후 5년간 평균 GDP 성장률의 목표를 6.5~7.0%로 설정, 안정된 정치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뤄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및 주요 과제〉

〈향후 5개년 국정 운영 목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3가지 분야의 지표로 분류하여 설정〉

구분	지표	목표치
경제지표	평균 국내총생산량(GDP) 성장률	6.5~7%
	2025년 1인당 GDP	US\$ 4,700~5,000
	2025년 GDP 내 가공·제조업 비중	약 25%
	2025년 GDP 내 디지털 경제 비중	약 20%
	2025년 경제성장 기여 총요소생산성(TFP)	약 45%
	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	6.5% 이상
	2025년 도시화율	약 45%
사회지표	평균 국가재정 적자액	GDP의 약 3.7%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각 74.5세, 67세
	2025년 사회 총노동력 가운데 농업 노동력 비율	약 25%
	2025년 훈련받은 노동인구 비율	70%
	2025년 훈련받은 노동인구 비율 가운데 학위·자격증 소지자 비율	28~30%
	빈곤가구 감소율	1.0~1.5%/년
	2025년 도시지역 실업률	4% 미만
	2025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10명
	2025년까지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30개
	2025년 의료보험 보급률	인구의 95% 이상
신농촌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비율	80% 이상	

구분	지표	목표치
환경지표	2025년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사용률	도시 인구의 95~100%, 농촌 인구의 93~95%
	2025년 위해 폐기물 처리율	90%
	2025년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역의 중앙집중식 폐수 처리 시스템 이용률	92%
	2025년 극심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100%
	2025년 산림률	42% 이상

〈12개의 주요 과제 선정 및 관련 해결방안 제시〉

- (1) 코로나19 관리와 사회경제적 재활 및 개발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정 지역 관할권의 실제 상황과 특정 조건에 따라 공중 보건, 안전 및 사회 보장 보호를 우선시
- (2)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일관적인 법제도를 완성
- (3) 성장 모델의 개혁과 관련된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 품질,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디지털 경제와 사회 발전
- (4)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 할당 및 사용 향상
- (5) 신속하고 현대적인 전략 인프라 시스템의 건설 및 개발 촉진
- (6) 혁신, 응용 및 과학 기술의 강력한 개발 촉진과 함께 인적 자원의 질 향상
- (7) 지역·경제권·도시개발 연계 개발 강화
- (8) 문화적 가치, 베트남인의 인간적 힘, 만민 민족 단결의 힘, 사회 진보와 정의 증진, 인민 생활 개선, 경제 발전과 문화 또는 사회 발전 사이의 조화로운 연결 보장
- (9)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 강화, 자연재해의 영향을 사전 예방·방지 및 제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
- (10) 국가 관리 및 개발 능력의 효과와 효율성 개선; 임금 개혁;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과 병행하여 행정 규칙 및 규율 강화
- (11) 사회경제적 발전을 국방 및 안보 잠재력의 통합 및 강화와 연계; 민족의 독립, 주권, 통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쟁; 국가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 유지
- (12) 대외 관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국제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의 위상 강화

자료: Resolution No.16/2021/QH15

■ 베트남의 ESG 실천 정책

- ESG 개념 및 요소별 평가 지표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ESG 항목별 주요 요소 및 요소별 평가 지표〉

분야	주요 요소	요소별 평가 지표
환경(E)	기후변화, 자원 고갈, 물, 공해, 삼림 파괴	1) 기후: 탄소 배출, 유형자산 회복성(resilience) 2) 공해: 대기, 수자원, 토양 등 3) 폐기물: 포장, 전자제품, 위험물, 폐수 등 4) 자원 이용: 물 부족, 에너지 관리, 생물다양성 및 토지 이용 등
사회(S)	인권, 현대판 노예, 아동 근로, 근로조건, 근로자 관계	1) 근로자: 기본적 욕구 및 웰니스(Wellness), 다양성 및 포괄성, 고용 및 승진, 직업 경험 2) 고객: 제품 안정성 및 품질, 판매 방식,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3) 사업 모델: 운영 회복성(resilience), 제품 설계 및 생애주기 관리, 공급망 관리, 접근 가능성, 공동체에 대한 투자
지배구조(G)	뇌물 및 부패, 경영진 보상,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조세 전략	1) 사업 수행: 윤리, 경쟁행위 2)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세금, 회계 및 내부감사 3) 리더십: 이사회 및 경영진 이력, 임금 등의 공개, 설립 목적 및 가치, 운영 리스크 및 기회, 지배구조 및 승계

자료: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WC,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정부 주도의 ESG 실천

- 베트남 정부는 세계적인 ESG 트렌드에 발맞춰 입법 활동을 통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베트남의 주요 ESG 관련 법제 현황〉

분야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
환경(E)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2050(2020) / 2021~2030년 국가 녹색성장 전략 및 2050년까지의 비전 제시(2021) / 온실가스 배출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령, 국내 탄소시장 초기 로드맵(2022) / 2030년까지 국가 환경보호 전략 및 비전 2025(2022) / 환경보호법 및 세부지침(2022) /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2022) / 강화된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 환경보호법(2022) / 전력개발 계획 8(2023)
사회(S)	소비자보호법(2011) / 노동법(2019) / 개정 노동법(2021) / 소비자보호법 개정안(2023)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초안 및 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2023)
지배구조(G)	지속가능발전지수(2017, HOSE) / 부패방지법(2019) / 증권법(2019) / 기업 거버넌스 모범사례 지침(2019) / 기업에 관한 법률(2020) / 투자 관련 법률 개정(2020) / 유가증권시장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MoF)(2020) / 환경 리스크 관리 지침(2020, SBV) / COP26 협약 준수를 위한 위원회 구성(2021)

자료: PwC,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환경) 2022년 발효된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을 통해 ①환경 영향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 명시, ②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화 대상* 6개 분야(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및 튜브, 윤활유, 자동차

및 오토바이, 포장재) 선정, ③온실가스 배출자 기준 및 할당량(2026년 규정 예정) 초과 배출 시 탄소배출권 확보 의무 명시

* 대상 기업: 상품 및 포장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부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함

〈분류 그룹별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EIA) 주요 내용〉

관리도구	그룹 I (환경 위험 높음)	그룹 II (환경 위험 있음)	그룹 III (환경 위험 경미)	그룹 IV (환경 위험 없음)
예비환경영향평가	그룹 I로 분류된 모든 프로젝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영향평가	그룹 I로 분류된 모든 프로젝트	그룹 II로 분류된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에 끼치는 민감 요인을 검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허가	폐수, 분진, 배기가스를 발생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끼쳐 그룹 I ~ III으로 분류된 프로젝트. 배출 전에 전 처리가 필요한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프로젝트 (규정에 따라 ODA로 분류되는 프로젝트는 제외)			
환경등록	폐기물을 생성하지만 환경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프로젝트. (a) 현장에서 처리 가능하거나 성·시별 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 (b) 관련 프로젝트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경우			

자료: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 Allen & Gledhill(2021)

〈온실가스 배출자 기준〉

1)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00톤 이상인 단체
2)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산업생산시설
3) 연간 연료 소비량이 1,000TOE 이상인 육로 운송 회사
4)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00TOE 이상인 상업용 건물
5) 연간 가동 용량이 65,000톤 이상인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자료: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 Allen & Gledhill(2021)

- (사회) 2021년 발효된 베트남의 개정 노동법은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

〈베트남 개정 노동법(2021년 발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근로 시간	초과 근무 시간은 월 40시간, 연 200시간 이내 * 예외 업종은 연 300시간
정년 연장	남성: 60세 → 62세, 여성: 55세 → 60세 * 2035년까지 점진적 조정
노동조합	복수 노조 인정
근로계약	근로계약 형식 인정 범위 확대: 서면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의 명칭이 아닌 경우 등
최저임금	국가임금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위원 추가
양성 평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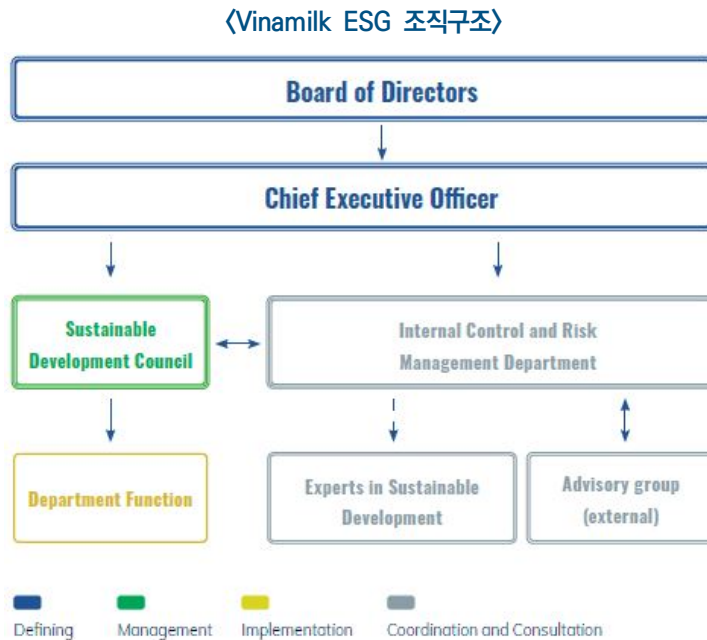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지배구조) 2012년 ‘중앙 반부패 지도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 들어 전방위적인 반부패 활동 확산 결과, 3,067건 부패 사건 적발* 및 부패인식지수 개선** 등 성과

*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 반부패전략 결산 및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행 계획 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총 3,067건의 부패 사건 적발, 7,383명 기소(유죄 판결 5,605명, 고위직 처벌 1,141명)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42점으로 2021년에 비해 10계단 상승한 세계 77위 차지

- 베트남 최대 유제품 기업 비나밀크(Vinamilk)의 ESG 실천 사례
 - 비나밀크는 47년 업력을 보유한 베트남 기업으로, ESG 경영 선도 대표 기업
 - ESG 수행을 위해 이사진과 경영진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행 부서 외에 내부 통제를 위한 관리 감독 부서를 두어 역할을 분담



자료: Vinamilk ESG 경영활동 보고서(2022)

- 그린팜(Green Farm) 프로젝트 : 건강한 유제품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가 충분한 공간에서 방목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사료를 제공하게 함
- * 총 3개소의 Green Farm 모두 온실효과가스 측정 장비와 관련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방출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감축 목표에 적극 반영



자료: Vinamilk ESG 경영활동 보고서(2022)

- ‘우유 펀드(Stand Tall Vietnam Milk Fund)’ 운영 :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우유 제품을 기부하기 위해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난 15년간 1,900억 동 (약 77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4,060만 잔의 우유를 제공했으며 수혜 대상은 50만 명에 이름

- 비나밀크 외에도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ESG를 실천하고 있음

〈베트남 기업의 ESG 실천 사례〉

구분	내용
베트남 기업	(마산그룹) 초·중등학교 정수기 제공, 하손(Ha Son)지역 대상 학생 장학 기금 마련, 롱안성(Long An) 6개 교량 건설 비용 지원 등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SK 그룹) ‘Smile for Children’ : 베트남 얼굴 기형 어린이 무료 수술 지원 사업(27년간 40,273명 대상 40억 원 수술비 전액 지원) (현대차) ‘아이오닉 포레스트 베트남 벵그로브 숲 조성 사업’
베트남 진출 글로벌 기업	(퓨마) 베트남 공장을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 발전 방식으로 전환, 작물 염색 및 세탁에 냉각수 재사용 등 (BAT) 조림 프로젝트(120헥타르 이상, 2022~2025년)

자료: 현지 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무디스 등 전문기관, 베트남의 ESG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부정적
 - 2022년 12월,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베트남의 ESG 신용영향점수*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며 베트남의 ESG 요소가 베트남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 *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 : 한 국가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1등급(긍정적)~5등급(매우 부정적) 등 5단계로 평가

▣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으로 EODES 및 AEO MRA 추진, 진출기업 통관 편의 증대 노력

- 2017년 EODES(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도입 합의 후 2023년 7월부 시행
 - (기존) FTA 협정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원본 수취 후 통관 과정에서 제출 필수, 원본 분실 위험 및 서류 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 등 발생
 - (현재) EODES 도입으로 원본이 아닌 원산지 증명서 스캔본 제출 가능, 베트남 세관 당국 및 한국 관세청은 상호 간 수신되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 정보를 통해 검증 가능
- AEO MRA의 신속한 체결을 통한 베트남 현지 통관 우대 혜택 활용 기대
 - AEO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에 따른 민·관 협력제도로서, 공급망 안전 보장을 위해 각 세관 당국은 화물 이동 관련 주체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심사 및 공인하여 통관 편의 제공
 - 베트남은 AEO 제도를 '우선기업제도'로 공식화하여 시행
 - 2023년 현재 베트남 기업 25개 및 FDI 기업을 포함하여 72개 기업이 우선 기업으로 공인되어 서류 및 실물 검사 면제 및 납부 유예 혜택 등을 받게 됨

〈베트남의 우선 기업 혜택〉

구분	제공 혜택
서류 검사 및 실물 검사 면제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및 일부 무작위 검사를 제외하고는 우대 기업에 대한 검사 면제 혜택 제공
세관 서류 사후 제출 혜택	세관 전산 신고 시스템상 이상 발생 시 간소화된 서류 제출 후 사전 통관 이행 가능, 사후(30일 내) 완전한 서류 제출 필요
통관 절차 우선권 혜택	무작위 검사, 통관 관련 질의 8시간 내 답변 제공, 물품 인수 우선권 제공 등 혜택 부여
세무 절차 우선권 부여	세금 사전 환급 사후 심사 진행 및 익월 10일까지 납부 기한 유예 혜택 제공
품질검사 관련 우대 혜택	베트남의 통관 과정에서 품질 전문검사(kiem tra chuyen nganh) 대상 품목에 대한 사전 기업 창고 활용 혜택, 샘플 채취 우선권 등 부여
내국수출입제도 관련 우대	베트남 내에서 물품 이동 시에도 수출입 절차 이행이 가능하게끔 한 관세법상의 내국 수출입 신고 이행 시, 물품 인도 먼저 이행 후 사후 신고(30일 내) 가능하게끔 혜택 부여
사후통관검사 면제 혜택	법령 위반 징후 있는 경우 제외, 사후통관검사 3년에 1회로 제한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 금번 개정 의정서상 AEO MRA 체결*을 위한 공동 노력 촉구 조항**이 신설되어 한국 AEO 기업에 대한 베트남 우선기업제도에 따른 통관 편의 가능성이 기대됨
- *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등 22개국('23년 6월 기준)과 MRA 체결 완료, 베트남은 '23년 9월 아세안 10개국과 MRA 서명을 하였으며 '24년도 내에 시범 이행 예정
- ** 개정의정서 발효일로부터 3개월 내에 MRA 협의 시작, 15개월 이내 MRA 서명 및 이행 촉구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 마련

- 베트남 정부는 2022년 6월 발표되었던 ‘2021~2030년 외국인 투자 협력전략(Decision 667/QD-TTg)’ 관련, 각 정부 부처의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에 박차
 - 외국인 투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현지 부품소재산업의 미성숙, 전문 인력 부족, 전력 공급 문제, 중고 설비 수입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혁신기술 산업 지원 정책의 부재 등을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개선하고자 함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2022.6.2.)〉

목적	①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현대적 경영 기법 도입, 고부가가치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통한 FDI 유치 ② FDI 부문의 자본, 기술, 경영 지식, 기업 문화를 활용한 시장 확장 및 경쟁력 향상 ③ FDI 유치 및 활용 효율성 개선 ④ 혁신센터 및 금융센터 설립
세부 목표	① FDI 관련 기존 정책 목표 달성을 통한 FDI 협력의 질과 효율성 제고 ②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인도 등으로부터의 FDI 유입 비율 2021~2025년 70% 이상, 2026~2030년 75% 이상 ③ 베트남 주재 기업 중 Fortune지 세계 500대 기업 수 50% 증가 ④ 2030년까지 세계 기업환경평가 아세안 3대 국가, 세계 60대 국가로의 진입
9대 해법	① FDI 관련 기존 정책의 효과적 이행 ②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의 질,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③ 과학, 기술 및 혁신 생태계 개발 ④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 강화를 위한 혁신 ⑤ 지원 산업 육성, 연계 및 확산 ⑥ 외국인 투자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 역량 제고 및 경쟁우위 활용 ⑦ 국제 경제 통합의 효율성 및 국제 무대에서 베트남의 위상 강화 ⑧ 현대적이고 다양하며 진보적인 투자 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율성 향상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2023.3.28.)〉

실행 부처	내용	실현 시점 (보고 시점)
기획투자부	공공조달법 프로젝트(개정)	2022~2023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3
	벤처 캐피탈(VC) 관련 법 제정 방안 보고	2023~2024
	2030년까지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이행방안 개발	2023~2024
	국가 생산성위원회 발족 사업	2023~2025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제공 위한 베트남 기업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	2023~2025

실행 부처	내용	실현 시점 (보고 시점)
	국가 재정 투입 해외 투자 유치 활동 관리 시스템 구축	2023~2024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개발	2023~2024
	국가혁신센터 및 지역, 지역혁신센터,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창업, 혁신 생태계 구축	상시
	지역 및 거점 내 혁신센터와 글로벌 센터와의 네트워크 연결	상시
재무부	의정서 No. 02/2015/ND-CP(통관 절차, 검사 및 감독에 관한 법령) 개정	2023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각 국가별 대응 정책 연구 및 베트남의 대응책 마련	2023
노동보훈 사회부	해외 수출 노동자의 베트남 귀국 이후 근로 현황 보고	2023~2024
	베트남 인력의 해외 취업을 위한 장려 정책 연구	2023~2024
	대기업, 외국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2023
산업무역부	2026~2035년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수립	2023~2025
	외국 투자기업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각 정책, 조치 필요사항 조사	2023
	국가 전력망 공급 수요를 초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가 발전 시설 건설 허가를 위한 방법 연구 조사	2023~2024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는 민간 송배전 건설, 설치 허가에 대한 연구 보고	2023~2024
	2030년 및 2050년까지의 베트남 제조·가공 분야 선제적 발전전략 수립	2023~2025
교육훈련부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및 국제 교육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2023~2025
	FDI 기업과 베트남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구 및 훈련 협력 촉진	상시
	교육 분야의 효과적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 및 협력, 국제화에 관한 심층적 지식, 기술 훈련	상시
천연자원 환경부	선진국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환경 분야 관련 국가 기술규정 조사·수정·검토 실시	상시
	지방 투자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발 투자 방법 안내 및 협력	상시
과학기술부	중고 장비, 기계 및 생산라인 수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총리 결정 No. 18/2019/QĐ-TTg(기계, 장비, 생산라인 수입 관련 규정) 수정·보완	2022~2023
	베트남 기업을 위한 기술 이전 및 합작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연구	2023
정보통신부	글로벌 테크기업 유치 및 디지털 혁신 분야 투자 장려를 위한 솔루션 및 지원정책 연구 보고	2023~2024
	테크기업 투자자 수요(4차 산업혁명 및 5G, AI, 반도체)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정보통신단지 및 하이테크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조사 실시	2023
	글로벌 테크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정보통신산업단지 개발·구축방안 연구	2023
	2021~2030년 기간 중 정부의 정보통신 분야 발전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상시
	베트남 기업의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기반 제품 생산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	2023~2024
교통부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프로젝트 프로필 작성	2023~2024

실행 부처	내용	실행 시점 (보고 시점)
공안부	투자 이전, 인수합병, 돈세탁 목적 지하경제 활용, 탈세와 같은 행위를 척결하는 등 경제 안보 보장을 위한 조치 시행	상시
외교부	고위급 공무원의 외교활동 및 경제 외교 수행을 통한 투자 촉진 활동 강화	상시
	베트남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 실시	상시
	글로벌 대기기업의 투자전략 업데이트 및 기획투자부와 협력 대응 솔루션 연구 및 방안 마련	상시
	외교적 민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처리방안 마련	상시
지방 정부	투자 부진·지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발굴 및 프로젝트 사업권 회수, 기타 투자자에 이전하기 위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조사 실시	상시
	지방 경쟁력 지수 향상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매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패키지 개발 및 마련	상시
	개발 계획 및 투자 유치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	상시

자료: 동 액션플랜은 기획투자부(MPI) 관할 하에 실시되며, 매년 총리에게 실행 결과 보고

▣ '24년 시행 예정 정책

- (재무부) 부가가치세 2% 인하 및 유류세 인하 연장 등 경기 부양책을 국회에 제안
 - 정부는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자 기존 '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10%→8%)를 '24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 제안
 -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기존 연료 제품에 대한 환경세 감면 정책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 제안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안 개요〉

(단위: VND)

	휘발유	등유	디젤 연료 및 윤활유	비행기 연료
(리터당) 기존 세율	4,000	1,000	2,000	3,000
(리터당) 인하/감면 세율	2,000	600	1,000	1,000

주: 1,000VND(베트남 동)는 약 0.04달러('23년 10월 환율 기준)

자료: 베트남 재무부

2

시장 분석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생산기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주요 부존 광물 자원 등이 이를 뒷받침함. 특히, 1억 인구를 토대로 소비시장도 성숙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과 수입은 감소하고 투자 유치는 증대되었음.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를 통해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받고 있으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탓에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다고 분석할 수 있음

가. 시장 특성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특장점

- ‘아직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① 임금

- '22년 7월 최저임금 6% 인상을 포함, 베트남은 최근 5년간 평균 7.4% 수준의 최저 임금 상승률 기록
 - * 베트남 총노동조합은 '24년에 최저임금이 5~6%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23년 10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상하이 지역의 최저임금(월 2,590위안, 약 47만 원)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 1지역의 월 최저 월급인 468만 동 (약 25만 원)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
 - * 다만, 최근 베트남의 임금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22년 7월 1일부)〉

(단위: 베트남 동)

구분	기존 최저월급	7월 1일부 최저월급	7월 1일부 시간당 최저임금
1지역	4,420,000 (약 23.7만 원)	4,680,000 (약 25.1만 원)	22,500 (약 1,208원)
2지역	3,920,000 (약 21.1만 원)	4,160,000 (약 22.3만 원)	20,000 (약 1,074원)
3지역	3,430,000 (약 18.4만 원)	3,640,000 (약 19.5만 원)	17,500 (약 940원)
4지역	3,070,000 (약 16.5만 원)	3,250,000 (약 17.5만 원)	15,600 (약 838원)

주: '23.10.31. 환율(100베트남 동 = 5.37원, 1위안 = 180.22원 기준)

자료: Decree No. 90/2019/ND-CP, Decree No. 38/2022/ND-CP

② 노동력

-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23년 2분기 기준 베트남의 노동 인구는 남성 2,767만 명, 여성 2,465만 명 등 총 5,230만 명(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 유엔(UN)에 따르면, 베트남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22년 기준)
- 그러나 베트남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020~2025 청년고용 현황' 보고('23년 10월)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청년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베트남의 '인구 황금기*'가 2038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측
 - * 인구 황금기: 유엔인구기금(UNFPA)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55% 이상인 시기를 인구 황금기로 규정

③ 시사점

- 베트남은 저임금(최저 월급 약 20만 원 내외)의 풍부한 노동력(10명 중 7명이 생산가능인구)을 자랑하지만, 높은 임금 상승률과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강점이 약화될 수 있음
 - 그러나 임금 상승과 고령화는 베트남 고유의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인적 자원 측면에 있어 베트남의 강점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인건비 경감과 원활한 노동력 확보만을 고려해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베트남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
- 쌀 수출국 세계 3위 베트남, '4차 산업혁명의 쌀' 매장량은 세계 2위
 -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2년 기준 베트남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 매장량 세계 3위, 주석 매장량 세계 10위, 보크사이트 매장량 세계 2위, 티타늄 매장량 세계 12위 등을 자랑하는 자원 강국
 - 최근 베트남 정부는 재정적 한계로 인한 자체적인 광물자원 개발에 어려움을 겪자 광물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존과 달리 민간·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향후 베트남의 광물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 '23년 7월, 베트남 정부는 천연자원 부문 개발을 위한 '2050년 목표, 2021~2030년 광물 탐사, 개발, 가공 및 사용계획'을 총리령(No. 866/QĐ-TTg)으로 승인. 이 결정문은 향후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광물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어 핵심 광물 확보를 다각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중요
 - (시사점) 정부의 계획대로 해외 투자의 도움을 받아 광물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베트남은 단순히 공급망 교란 '디리스크(de-risking, 위험 경감)'을 위한 대안이 아닌, 원자재 공급 역량까지 갖춘 최적의 생산 기지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화할 가능성이 높음

- 한계: 후방 산업에 집중된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
 - ’23년 기준 약 5,000개 기업 분포(베트남 통계총국)
 - 다국적기업의 1차 벤더는 약 100개 사, 2차 및 3차 벤더 기업 수는 약 700개 사
 - * 삼성: 1차 협력사 약 50개 사, 2차 협력사 약 170개 사
 - WT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방산업 참여지수는 11.0, 후방산업 참여지수는 51.1로서 베트남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비자에 가까운 전방산업보다는 소재나 원재료 공급에 가까운 후방산업에 주로 위치

〈베트남의 GVC 참여 인덱스〉

(단위: 2018년 각 국가 및 각 대륙 총 수출액 대비 GVC 기여도 %)

	베트남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총 GVC 참여지수	62.1	44.4	48.8	37.8	36.5
전방산업 참여지수	11.0	20.0	21.2	22.0	23.5
후방산업 참여지수	51.1	24.4	27.6	15.8	13.0

자료: WTO, Vietnam's Trade in Value Added and Global Value Chains(2018)

- 국산화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23년 10월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원 산업 내 기업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부문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과 FDI 기업 간 연결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언급됨

* 섬유·의류·신발: 45~50%, 기계 제조: 15~20%, 자동차 제조 및 조립: 5~20% 등

- (시사점)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참여에 따른 베트남 기업의 실질적 손해가 미진하여 역으로 베트남 진출 FDI 기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노동력의 숙련도 및 베트남 지원 산업 내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되어야 FDI 기업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존·상생 전략 고민 필요

*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24년부터 인재 양성, 노동기술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1억 소비시장

- 소비시장의 양적 개선, 1억 내수시장 공식화
 - 베트남 통계총국, ’23년 4월 기준 인구 1억 명 돌파 예정 발표(’23년 3월)
 - * 베트남 당국의 최신 인구 통계는 ’22년 4월 기준 9,920만 명이며 해당 수치에 인구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발표. IMF 또한 베트남의 ’23년 기준 인구 추정치를 1억 명으로 발표

- 소비시장의 질적 개선, 중산층 비율·소득 수준·여성 노동 참여 비율 모두 상승
 - (도시화율*) '22년 기준 41.7%(전년 대비 1.2% 증가, 아세안 10개국 중 7위 속도)로 처음 40%대 진입하며 도시 인구 증가, 정부의 '23년 목표치는 53.9%
 - * 전체 인구 중 도시 거주 인구 비율(베트남 건설부)
 - (중산층* 비율) 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00년 기준 인구의 10% 미만이었으나, '22년 기준 40%로 증가, '30년에는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 구매력평가(PPP) 기준, 하루 최소 11달러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 (소득 수준) IMF에 따르면, 1인당 명목GDP 기준 베트남의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3년에는 전년 대비 9.5% 상승한 4,476달러로 추정됨
 - (여성 노동 참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1년 기준 베트남 여성의 70.9%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 속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치인 47.2%와 아·태지역 평균치인 43.9%를 크게 상회함. 이코노미스트(영국)에 따르면, '19년 기준 베트남 15~64세 여성 인구의 79%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까다로워지고 있는 베트남 소비자
 - Mckinsey는 2023년 베트남 소비자의 최신 경향을 “4개의 영(Four Zeros)”으로 요약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Zero mainstream) 상품의 가치에 민감하여 일부 상품에는 소비를 아끼지만, 일부 상품에는 소비를 과시
 - (Zero boundaries) 옴니채널(Omnichannel) 쇼핑이 엔데믹 이후에도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임
 - * 코로나19 기간 오프라인 쇼핑 대신 옴니채널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옴니채널 지속 사용 의향은 제품군별 66~87%를 기록
 - (Zero loyalty) 상대적으로 매장 및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지난 3개월간 매장이나 브랜드를 바꾼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그렇다고 응답(응답률 90%)했으며, 타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77%, 중국 74%, 한국 55%, 일본 27%로 나타남
 - (Net-Zero*) 설문 응답자의 75%는 엔데믹 이후에도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4%만이 친환경 제품 구매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환경 보존을 위해 추가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응답자의 31%에 불과하였음
 - * 최근 흔히 '탄소중립'의 의미로 사용되나, 해당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개인의 '웰빙 중시'와 '환경 경시'의 '합이 영(0)'이 된다는 의미로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포한 것으로 보임
 - (시사점) 소비자가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소비자의 취향과 행동양식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교역

▣ 베트남 교역 동향

- 지난 5년(2018~2022년)간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8.8% 증가
 - 2018년 교역액은 4,80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52.1% 성장한 7,302억 달러 기록
 - 국가별 수출 규모 순위: 20위('17년) → 18위('22년)
- 그러나 '23년 1~9월 베트남의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생산 및 수출 주문) 감소에 따라 2023년 1~3분기 누계 베트남 교역 규모는 4,963억 달러로 11.1% 감소
 - 수출(-8.5%)보다 수입(-14.0%)이 더 줄면서 무역수지(216억 달러)는 불황형 흑자 기록

〈2018~2023년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분기
수출 (증감률)	243,697 (13.3)	264,267 (8.5)	282,629 (7.0)	336,167 (18.9)	371,304 (10.5)	258,970 (-8.5)
수입 (증감률)	236,869 (11.2)	253,393 (7.1)	262,691 (3.7)	332,843 (26.7)	358,902 (7.8)	237,327 (-14.0)
무역수지	6,828	10,874	19,938	3,324	12,403	21,643
교역 (증감률)	480,566 (12.3)	517,660 (7.8)	545,320 (5.3)	669,010 (22.7)	730,206 (9.2)	496,297 (-11.1)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베트남의 상위 3대 교역국은 중국, 미국, 한국 순으로, 2023년 1~3분기 누계 기준 3개국의 교역액은 전체 베트남 교역액의 절반 이상인 52.1% 차지
 - 한국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베트남의 3위 교역국 지위 유지 중

〈2019~2023년 베트남의 10대 교역국 순위 및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 US\$ 십억, %)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3분기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1	중국	116.9 (22.6)	중국	133.1 (24.4)	중국	165.8 (24.8)	중국	175.6 (24.0)	중국	122.0 (24.6)
2	미국	75.8 (14.6)	미국	90.8 (16.6)	미국	80.5 (16.6)	미국	123.9 (17.0)	미국	80.5 (16.2)
3	한국	66.8 (12.9)	한국	66.0 (12.1)	한국	56.4 (11.7)	한국	86.4 (11.8)	한국	55.9 (11.3)
4	일본	39.9 (7.7)	일본	39.6 (7.3)	일본	30.9 (6.4)	일본	47.6 (6.5)	일본	32.9 (6.6)
5	대만	19.5 (3.8)	대만	21.0 (3.9)	대만	18.6 (3.9)	대만	27.7 (3.8)	대만	17.1 (3.5)
6	태국	17.0 (3.3)	태국	15.9 (2.9)	태국	13.7 (2.8)	태국	21.6 (3.0)	태국	14.1 (2.8)
7	홍콩	11.2 (2.2)	홍콩	11.5 (2.1)	인도	9.8 (2.0)	호주	15.7 (2.2)	인도	10.7 (2.2)
8	말레이시아	11.1 (2.1)	말레이시아	10.0 (1.8)	홍콩	9.6 (2.0)	인도	15.0 (2.1)	호주	10.3 (2.1)
9	독일	10.3 (2.0)	독일	10.0 (1.8)	말레이시아	9.1 (1.9)	말레이시아	14.7 (2.0)	인도네시아	10.2 (2.1)
10	인도	9.1 (1.8)	인도	9.7 (1.8)	호주	9.1 (1.9)	인도네시아	14.2 (1.9)	말레이시아	9.3 (1.9)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국별/품목별 수출입 동향

-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1위), 중국(2위), 한국(3위), 일본(4위) 순
 - 2023년 1~3분기 누계 기준 미국 702.3억 달러(27.1%), 중국 428.6억 달러(16.6%), 한국 176.9억 달러(6.8%) 순

-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1위), 한국(2위), 일본(3위), 대만(4위) 순
 - 2023년 1~3분기 누계 기준 중국 791.7억 달러(33.4%), 한국 382.2억 달러(16.1%), 일본 157.1억 달러(6.6%), 대만 136.5억 달러(5.8%) 순

〈2023년 1~3분기 베트남의 주요 수출·수입국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미국	70,234(27.1)	1	중국	79,179(33.4)
2	중국	42,860(16.6)	2	한국	38,226(16.1)
3	한국	17,696(6.8)	3	일본	15,714(6.6)
4	일본	17,192(6.6)	4	대만	13,651(5.8)
5	네덜란드	7,415(2.9)	5	미국	10,266(4.3)
6	홍콩	6,712(2.6)	6	태국	8,684(3.7)
7	인도	6,223(2.4)	7	호주	6,404(2.7)
8	독일	5,569(2.2)	8	인도네시아	6,389(2.7)
9	태국	5,445(2.1)	9	말레이시아	5,626(2.4)
10	영국	4,678(1.8)	10	인도	4,511(1.9)
기타		74,946(28.9)	기타		48,679(20.5)
합계		258,970(100)	합계		237,327(100)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베트남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은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전화기·무선 통신기기 및 부분품으로 모두 전기·전자산업 관련 품목
 - 2023년 1~3분기 누계 기준 10대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하여 주요 품목의 부진이 전체 수출액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전화기·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수출액 약 390억 달러의 90%는 삼성과 연관되어 있음(베트남 산업무역부)
 - * 타 품목의 부진 속에서도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16.7% 증가한 점은 특징적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1~3분기		
		수출액	비중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55,536	15.6	41,414	-1.1	16.0
2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57,994	15.0	38,923	-13.7	15.0
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5,751	12.3	30,912	-9.8	11.9
4	섬유·의류제품	37,567	10.1	25,095	-13.6	9.7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1~3분기		
		수출액	비중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5	신발류	23,896	6.4	14,698	-19.1	5.7
6	수송수단 및 부속품	11,988	4.3	10,279	16.7	4.0
7	목재 및 목제품	16,011	3.2	9,624	-21.8	3.7
8	수산물	10,923	2.9	6,602	-22.1	2.5
9	철강	7,993	2.2	6,295	-3.3	2.4
10	카메라 및 부분품	6,374	1.7	4,729	4.6	1.8
	기타	97,270	26.2	70,398	-	27.2
	총 수출액	371,304	100	258,970	-8.5	100

주: 2023년 1~3분기 누계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은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기계·장비·도구 및 기타 부속품, 직물 등
 - 2023년 1~3분기 누계 기준 주요 수입 품목은 모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전체 수입액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수입은 전년 대비 61.7% 감소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1~3분기		
		수입액	비중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81,884	22.8	62,823	-1.8	26.5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5,193	12.6	30,353	-11.8	12.8
3	직물	14,707	5.9	9,579	-16.3	4.0
4	철강	11,920	4.1	7,535	-21.3	3.2
5	플라스틱 원료	12,387	3.5	7,173	-26.9	3.0
6	석유제품	8,969	3.3	6,659	-2.4	2.8
7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21,126	2.6	6,047	-61.7	2.5
8	화학 원료	9,145	2.5	5,679	-21.7	2.4
9	화학제품	8,748	2.5	5,594	-16.7	2.4
10	비금속류	9,254	2.4	5,594	-22.9	2.4
	기타	135,569	37.8	90,291	-	38.0
	총 수입액	358,902	100	237,327	-14.0	100

주: 2023년 1~3분기 누계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베트남의 무역 구제 현황 및 주요 조치

- 10개국 물품에 대한 구제 조치 39건, 전 세계 물품을 대상으로 한 구제 조치 2건 등 총 41건(23년 10월 기준)
 - (유형별) 반덤핑 33건, 세이프가드 2건, 상계관세 6건
 - (품목별) 철강 및 금속이 가장 많은 15건을 차지하였으며, 사탕수수당에 대해 태국산에만 부과되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5개국 물품에 추가 부과되며 식품 분야에서 총 12건의 무역 구제 시행 중

〈베트남의 유형·품목별 무역구제 현황〉

산업	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철강·금속		13	-	-	-	2	-	15	0
식품		6	-	6	-	-	-	12	0
화학		5	-	-	-	-	-	5	0
플라스틱·고무		3	-	-	-	-	-	3	0
섬유·의류		4	-	-	-	-	-	4	0
전기·전자		-	-	-	-	-	-	0	0
기계		-	-	-	-	-	-	0	0
기타		2	-	-	-	-	-	2	0
총계		33	0	6	0	2	0	41	0

자료: 베트남 산업보호국 무역구제청 사이트,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의 국가별 무역 구제 현황〉

조치	대상국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중국	11	-	-	-	-	-	11	0
	말레이시아	7	-	1	-	-	-	8	0
	인도네시아	5	-	1	-	-	-	6	0
	태국	3	-	1	-	-	-	4	0
	인도	2	-	-	-	-	-	2	0
	미얀마	1	-	1	-	-	-	2	0
	라오스	1	-	1	-	-	-	2	0
	캄보디아	1	-	1	-	-	-	2	0
	대만	1	-	-	-	-	-	1	0
	한국	1	-	-	-	-	-	1	0
	전 세계	-	-	-	-	2	-	2	0
	총계	33	0	6	0	2	0	41	0

자료: 베트남 산업보호국 무역구제청 사이트,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수입 금지 품목

- 베트남은 자국의 특정 물품 보호를 위해 법으로 수입 금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Decree No. 69/2018/ND-CP)의 부록 1에서 수입 금지 대상 14개 품목군을 규정
 - 품목별로 관할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금지 품목 해당 여부는 각 부처별 시행 규칙 확인 필요

〈베트남 주요 수입 금지 품목〉

연번	품목명	관할 부처
1	무기, 탄약, 폭발물(산업용 폭발물 제외), 군용 기술장비	국방부
2	각종 폭죽(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해상 안전용 제외), Sky lantern 관련 장치	공안부
3	특정 법령(Decree No. 38/2014/ND-CP, Decree No. 113/2017/ND-CP)에 따른 화학물질	산업무역부
4	중고 소비재, 의료 장비 및 차량 - 섬유 및 의류, 신발 등 - 전자제품, 냉장장비, 가전제품 - 자전거, 이륜차 등	산업무역부
5	유통 금지 대상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
6	중고 IT 장비	정보통신부
7	유통 금지 출판물, 우편법에 따른 유통 금지 우표	정보통신부
8	중고 차량 - 우측 핸들 차량 - 프레임 또는 엔진 번호가 삭제·수정·변조된 차량	교통부
9	중고 부품 및 차량 - 엔진, 프레임, 타이어 등 자동차의 예비 부품 및 모터 - 생산연도로부터 5년이 지난 차량 및 트레일러와 중고 구급차	교통부
10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제품	농업농촌개발부
11	사용 금지 살충제	농업농촌개발부
12	CITES에 따른 동식물	농업농촌개발부
13	폐기물, 스크랩(Scrap), 프레온 가스(C.F.C.) 사용 냉장 설비	천연자원환경부
14	각섬석 그룹의 석면을 포함하는 제품 및 재료	건설부

자료: Decree No. 69/2018/ND-CP 부록 1

▣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 제품 및 재화의 품질 관리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수입물품 품질 관리
 - 생산자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그룹(Group 1) 및 국가기관이 정한 규범에 따라 관리하는 그룹(Group 2)로 물품을 나누어 관리
 - 각 부처별로 그룹 2 해당 품목을 발표하며, 이들은 QCVN(베트남국가기술규정) 등 강제 인증 기준 합치 여부에 대해 통관 과정에서 확인받아야 함

〈베트남 정부 부처별 검사 대상 품목〉

관할 부처	검사 대상 품목
농촌개발부	- 식물 종자 (쌀, 옥수수 등) - 동물용 약품, 사료, 해양 양식용 사료 - 제초제 및 농약류 - 비료, 공업용 소금, 목재용 접착제 - 농업용 및 농촌발전용 기계설비 등
산업무역부	- 질소 암모니아 연료 및 폭발물 - 건설용 파이프, 비계, 액화가스용 컨테이너 등 - 스팀 및 증기 보일러, 중앙제어 보일러 - 폭발 방지 통신장비, 전기 회로 보호 장비, 케이블, 램프 등
교통부	- 도로 운송수단: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 - 중장비: 기중기 - 철도 운송수단
건설부	- 시멘트류, 공사용 모래, 연석과 포석, 건설용 유리 및 기타 건설용 원재료
공안부	- 투망기, 총기류, 폭탄류, 최루탄, 가스마스크 등
노동보훈 사회부	- 공업용 안전용품: 안전헬멧, 안전화, 팔 보호구, 안면 보호구, 보안경, 산업용 마스크 등 - 리프트 및 리프트용 안전용구, 에스컬레이터 등 - 압축 가스 실린더 및 컨테이너 - 풀리와 호이스트 및 이동 용구
정보통신부	- 무선 송수신 기기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신기 - IT장비 (컴퓨터, 랩탑, 태블릿) - 랩탑, 핸드폰, 태블릿 PC용 리튬 배터리
과학기술부	- 가솔린, 디젤유, 바이오연료 및 LPG - 오토바이 헬멧 - 어린이 장난감 - 온수기, 가정용 전열기, 선풍기,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 공사용 철근 및 철강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 엔진용 윤활제 - LED 제품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 시장 유통 전 등록 필요 소비재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비재 제품은 등록이 필요
 -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보건부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며, 수입허가서 보유 및 유통 등록 여부를 통관 시 확인

〈보건부 관할 베트남 조건부 수입 대상 품목〉

연번	명세	관할 부서 및 조건
1	베트남 유통 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것 - 특별 관리 대상 의약품 제외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기 - 가정용 및 의학용 살충제, 살균제	수요에 따른 수입 가능
2	특별 관리 대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보건부 수입 허가서
3	베트남 유통 등록이 되지 않은 다음의 것 - 의약품, 의약품 원료 - 연구 및 분석용 및 사용 안내용, 수리용 의료기기 - 무상원조 목적의 의료기기 - 개인 사용 목적의 의료기기	보건부 수입 허가서
4	표준물질, 의약품과 직접 닿는 포장지	보건부 수입 허가서
5	보건부 관리 대상 수입 식품 (생수, 얼음,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및 가공식품류 등)	기술 규정과 합치하다는 보고 및 식품 안전규정 부합 보고, 국가 검사 대상
6	연구용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보건부 수입 허가서
7	그외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원조 목적 제품 (목적에 맞게 수입되는 선물용 등)	보건부 수입 허가서
8	화장품	기술표준 합치 보고

자료: No. 69/2018/ND-CP(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에서는 FDI 기업이 수출입 또는 국내 유통할 수 없는 품목을 공시하고 있음
(Circular No. 34/2013/TT-BCT)

〈FDI 기업 대상 수출입·유통 제한 품목〉

구분	품목명
수출 금지 품목	광유 및 역청광 추출 원유
수입 금지 품목	시가 · 셔루트 · 시가릴로 및 켈련, 제조 담배, 재구성 담배, 담배 엑기스 등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기타 석유 조제품, 웨이스트오일 등
	신문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디스크 · 테이프 및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등
	기타의 항공기, 우주선, 서보 비틀 및 우주선 운반 로켓 등

구분	품목명
유통 금지 품목	쌀,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담배, 시가
	원유 및 가공유
	약품
	폭발물
	서적, 신문 및 잡지
	귀금속 및 귀석, 주화 등
	모든 소재의 녹음/녹화물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전자 형태의 것 / 문화부 규정에 따른 문화, 사회, 정치 안보 관련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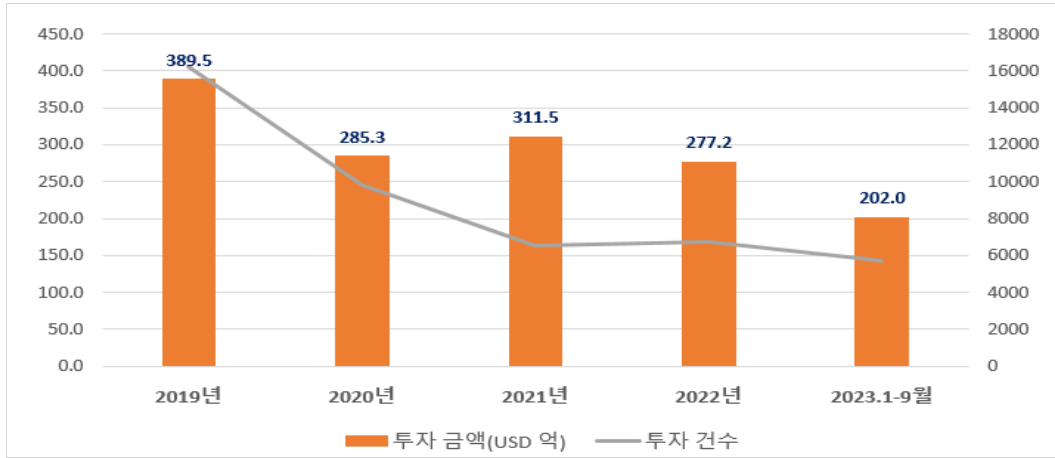
자료: Circular No. 34/2013/TT-BCT

다. 투자

▣ 최근 투자 진출 동향

- 2023년 1~9월 베트남의 FDI 유치 총액은 2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 그 중 신규 투자는 총 2,254건, 투자액 10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3% 및 43.6%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가공업에 140.1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FDI의 69.3% 차지, 이어 부동산 경영업 19.4억 달러(9.6%), 은행·금융업 15.4억 달러(7.6%), 전문·과학·기술업 7.3억 달러(3.6%) 순
 - 제조·가공업 분야 신규 투자는 735건, 8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2%, 78.0% 급증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
 - 현지 부동산 컨설팅 기관(Savills Vietnam)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 증가세로 인해 공장용 부지를 찾는 외국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북부와 남부지역 산단 부지 임대료가 전년 대비 상승
- * 북부: (㎡당) 평균 102달러→138달러(35% 증가), 남부: (㎡당) 평균 152달러→174달러(14.5% 증가)

〈최근 5개년 對베트남 외국인 투자 동향〉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3.9.20. 기준)

- 2023년 1~9월 투자국별 순위는 싱가포르가 39.8억 달러로 1위, 이어 중국 29.2억 달러, 일본 28.9억 달러, 한국 26.6억 달러, 홍콩 19.1억 달러 순
 - 국가별 신규 투자 규모는 싱가포르(26.2억 달러), 중국(20.9억 달러), 홍콩(14.9억 달러), 대만(10.2억 달러), 일본(6.6억 달러), 한국(5.1억 달러) 순으로 기존 제조업 투자 강국이던 한국, 일본은 감소한 반면, 중국, 홍콩, 대만의 신규 투자가 확대된 점이 특징적

〈최근 3개년 주요국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국가명	2021년		2022년		2023년 1~9월		누적 총투자액 ('88~'23.8)
	투자액	전년 대비 증감률	투자액	전년 대비 증감률	투자액	전년 대비 증감률	
한국	4,953.2	25.4%	4,879.0	-1.5%	2,664.9	-30.2%	82,998.3
싱가포르	10,712.0	19.1%	6,455.0	-39.7%	3,983.4	-16.2%	72,979.0
일본	3,897.5	64.6%	4,781.4	22.7%	2,899.6	51.0%	71,337.2
대만	1,252.0	-39.2%	1,351.6	8.0%	1,541.4	89.0%	37,955.5
홍콩	2,315.8	15.8%	2,223.9	-4.0%	1,911.7	58.4%	31,335.7
중국	2,921.7	18.8%	2,518.0	-13.8%	2,923.2	94.9%	26,043.2
버진아일랜드	569.6	-36.9%	607.0	6.6%	123.9	-67.7%	22,707.2
네덜란드	1,122.3	25.2%	702.2	-37.4%	785.5	2.5%	14,194.8
태국	349.7	-80.4%	198.9	-43.1%	558.9	119.7%	13,734.4
말레이시아	142.8	-26.8%	185.2	29.6%	20.8	-88.1%	13,098.4
미국	738.7	104.8%	748.2	1.3%	505.2	12.6%	11,809.3

주: 누적 총투자액 순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9.20. 기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 집계

▣ 주요 경쟁국의 투자 진출 동향

- 싱가포르

- 총 투자액은 전년 대비 16.2% 감소했으나 최근 4년간 對베트남 최대 투자국
- (제조업 투자 사례) Ingrasys(전자부품, 6.2억 달러), Foxconn(애플사 제품 부품, 2.0억 달러), Nitto Vietnam(LCD 패널, 1.3억 달러), FU WING Interconnect Tech(애플사 제품 부품, 1억 달러), YEDEA International(전기 오토바이 제조, 1억 달러) 등

〈2023년 1~9월 산업 분야별 싱가포르의 對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건, %)

	신규 프로젝트		증액 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 매입		총투자액	투자 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77	2,050.8	32	95.5	13	72.3	2,218.7	55.7
부동산경영	11	408.5	7	204.7	14	585.0	1,198.2	30.1
전문과학기술	49	34.1	16	-13.9	66	177.9	198.0	5.0
도·소매, 유통, 수리	59	45.8	19	11.2	62	119.9	176.9	4.4
건설	3	53.9	5	39.6	6	2.9	96.5	2.4
기타	84	27.9	22	21.7	74.0	45.4	95.0	2.4
총계	283	2,621.0	101	358.7	235	1,003.6	3,983.3	1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중국

- 중국의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94.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 2023년 1~9월 기준 베트남 2대 투자국으로 올라섰으며, 2,000만~5,000만 달러 규모의 제조 분야 투자 프로젝트가 증가하며 제조업 투자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국가가 됨
- (제조업 투자 사례) Shandong Hao Hua Tire(타이어, 5억 달러), Hai Nan Longi Green Energy(태양광 배터리, 1.4억 달러), Kingfa Sience & Technology(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8,000만 달러), Xiamen Sunrise Group(자동차 휠, 5,500만 달러) 등

〈2023년 1~9월 산업 분야별 중국의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건, %)

	신규 프로젝트		증액 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 매입		총투자액	투자 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232	1,866.3	95	674.9	113	80.5	2,621.7	89.7
도·소매, 유통, 수리	170	62.9	15	9.2	118	27.9	100.1	3.4
부동산경영	10	81.3	2	1.6	9	10.0	92.9	3.2
용수 공급 및 처리	1	60.0	-	-	-	-	-	2.1
건설	11	5.7	7	8.0	5	0.7	14.4	0.5
기타	54	18.1	9	5.1	50	10.8	34.0	1.2
총계	478	2,09.4	128	698.8	295	129.9	2,923.1	1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일본

- 2023년 1~9월 일본의 베트남 투자는 非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이 크며, VP Bank 지분 15% 구입에 15억 달러 이상 투자
- 2023년 1~9월 총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0%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비율은 15%대로 낮으며, YOKOREI(냉동창고, 5,200만 달러), MSV Neptune Pte(창고업, 4,500만 달러) 등 물류창고업 투자가 가장 규모가 큼

〈2023년 1~9월 산업 분야별 일본의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건, %)

	신규 프로젝트		증액 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 매입		총투자액	투자 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금융, 보험	-	-	-	-	4	1,505.2	1,505.2	51.9
제조·가공	53	424.3	57	221.9	16	206.4	852.7	29.4
부동산경영	5	92.2	7	26.5	3	13.9	132.6	4.6
도·소매, 유통, 수리	56	49.1	13	24.4	44	16.7	90.1	3.1
전문과학기술	41	22.1	11	58.2	31	2.9	83.2	2.9
기타	70	74.3	30	97.2	73	64.3	235.8	8.1
총계	225	662.0	118	428.2	171	1,809.4	2,899.6	1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대만
 - 2023년 1~9월 대만의 베트남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9.0% 증가
 - 주로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전자기기 장치, 애플 부품 제조사의 베트남 투자 진출 증가
 - (제조업 투자 사례) Inventec Vietnam(모바일기기 부품, 1억 2,000만 달러), Quanta Computer(컴퓨터 부품, 1억 2,000만 달러), BOLTUN(보안 장치, 1억 6,000만 달러), LIOHO Machine Works(자동차 부품, 7,500만 달러) 등

〈2023년 1~9월 산업 분야별 대만의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건, %)

	신규 프로젝트		증액 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 매입		총투자액	투자 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전문과학기술	23	2.3	4	213.4	25	39.7	255.5	50.7
정보통신	17	1.6	3	99.6	10	4.8	106.0	21.0
제조·가공	10	67.0	9	-2.2	16	8.1	72.9	14.5
부동산경영	1	6.8	-	-	4	33.1	40.0	7.9
도·소매, 유통, 수리	27	3.2	1	4.3	35	11.3	18.8	3.7
기타	7	1.3	2	2.9	21	6.9	11.1	2.2
총계	85	82.2	19	318.0	111	103.9	504.2	1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홍콩
 - 2023년 1~9월 홍콩의 베트남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
 - 애플 에어팟 제조사인 Goertek이 홍콩 자본으로 투자(2.8억 달러)되었으며, 섬유·의류기업의 투자도 증가 추세
 - 중국 소재 기업들의 홍콩 금융시장 경유 베트남 투자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제조업 투자 사례) Greenwich Management(전자제품용 합금 제조, 1억 6,000만 달러), SUNNY AUTOMOTIVE(카메라 모듈, 전자기기 부품, 1억 5,000만 달러), CE Link(전자부품 제조, 6,000만 달러) 등

〈2023년 1~9월 산업 분야별 홍콩의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건, %)

	신규 프로젝트		증액 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 매입		총투자액	투자 비율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액		
제조·가공	120	1,309.6	54	264.5	13	83.0	1,657.2	86.7
전력 생산·판매	1	90.8	-	-	-	-	90.8	4.7
도·소매, 유통, 수리	51	34.5	10	1.6	16	9.9	46.0	2.4
기타서비스	1	42.0	-	-	1	0.0	42.0	2.2
물류 창고	9	9.5	1	15.0	10	3.4	27.9	1.5
기타	30	9.2	6	15.4	21	23.3	47.9	2.5
총계	212	1,495.6	71	296.5	61	119.7	1,911.8	1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 투자 진출 진입장벽

- 외국인 투자 시 ‘조건부 사업 분야(Conditional Business Sector)’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입장벽 존재
 -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및 양·다자간 FTA 체결을 통해 유통업, 무역업, 병원업, 통신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에 대해 외국인에 점진적 시장 개방 약속
 -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상 ‘조건부 사업 분야(267개 업종)’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무관하게 관련 사업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업 허가를 발급
 - * (조건부 투자 분야 인·허가) 투자 등록 허가 및 사업자등록증 우선 취득, 별도 일정 기한 내 해당 분야 관할 정부 부처로부터 업종에 대한 사업 허가(Business License) 취득
 -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각 투자 분야별 ‘시장 진출 조건’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등 사업 허가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음 (예: 교육업, 유통업, 정보통신업, 의료업 등)
 - * 투자 조건: ①외국 소유 지분 ②투자 형태 ③사업 활동 범위 ④투자자 역량 ⑤관련 법률 및 베트남 체결 국제 조약

라.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 V자 반등 전망 속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 심화 예상

- 베트남 인프라건설시장 단기 침체 후 반등 및 견조한 성장세 지속 예상
 - 정부, '45년까지 선진국 진입 목표로 '30년 국가기본계획(National Master Plan 2030)'과 '2045년 기본 계획 비전(Vision of Master Plan)' 승인
 - 이에 향후 정부 차원에서 교통주거, 에너지, ICT 등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계획

〈베트남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시장 전망〉

구분	'22	'23(e)	'24(e)	'25(e)	'26(e)
시장 규모 (10억VND)	506,097.0	553,199.4	616,175.7	686,018.9	762,926.7
성장률(%)	7.1	4.6	7.1	7.6	7.5
GDP 비중(%)	5.3	5.2	5.2	5.3	5.3

자료: Fitch Solutions

- '21년 민관협력법(PPP) 발효 후, 외국 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 심화
 - 현재 베트남 인프라 시장은 베트남 기업(43%)과 외국 기업(57%)으로 양분, 외국 기업 중 韓(15%)·中(13%)·日(8%) 순으로 시장 점유 중
 - 中 기업 저가 수주, 日 기업 금융 경쟁력 우위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필요

가. 교역

▣ 한국-베트남 교역 동향

- 2023년 9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으로,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약 587억 달러를 기록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약 3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고, 수입액은 약 1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

* 한국의 대외 교역에서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17)3위 → ('18)3위 → ('19)3위 → ('20)3위 → ('21)3위 → ('22)3위 → ('23.9)3위
- 수입: ('17)8위 → ('18)7위 → ('19)5위 → ('20)5위 → ('21)6위 → ('22)7위 → ('23.9)6위
- 교역: ('17)4위 → ('18)4위 → ('19)4위 → ('20)4위 → ('21)4위 → ('22)3위 → ('23.9)3위

* '23년 9월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 대상국(수출 3위, 수입 2위)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9월
수출 (한→베)	47,754 (46.3)	48,622 (1.8)	48,178 (-0.9)	48,551 (0.7)	56,729 (16.9)	60,964 (7.5)	39,110 (-16.1)
수입 (베→한)	16,177 (29.5)	19,643 (21.4)	21,072 (7.3)	20,579 (-2.3)	23,966 (16.5)	26,725 (11.5)	19,571 (-5.9)
무역수지	31,577	28,979	27,106	18,629	32,763	34,239	19,539
교역 규모	63,931 (41.7)	68,265 (6.8)	69,250 (1.4)	69,090 (-0.2)	80,695 (16.8)	87,688 (8.7)	58,681 (-12.9)

주: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3년 1~9월 품목별 對베트남 수출 동향
 - 10대 주요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중 특히 전기·전자 산업 관련 품목(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은 절반(49.0%) 가까이 차지
 -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합성수지의 감소율(-30.1%)이 가장 컸고, 철강판(-28.1%), 반도체(-26.6%), 기구 부품(-18.1%)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은 총 수출액의 전년 대비 감소율(-16.1%)보다 감소폭이 더 컸음
 - 반면에 계측제어분석기 품목은 10대 품목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과 달리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

〈'23년 1~9월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8,896	-26.6	22.7
2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8,685	-6.9	22.2
3	석유제품	2,839	-2.4	7.3
4	무선통신기기	1,606	-11.0	4.1
5	합성수지	1,484	-30.1	3.8
6	기구 부품	1,402	-18.0	3.6
7	플라스틱 제품	763	-8.3	2.0
8	철강판	653	-28.1	1.7
9	계측제어분석기	646	1.6	1.7
10	기타 기계류	600	-7.2	1.5
	기타	11,536	-	29.5
	합 계	39,110	-16.1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 '23년 1~9월 품목별 對베트남 수입 동향
 - 10대 주요 수입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중 무선통신기기 수입 규모가 전체 수입액의 17.9%로 가장 많아 지난해에 이어 수입 1위 품목으로 기록되었으나, 수입 감소(-29.8%)에 따라 비중이 크게 감소(24.0%→16.7%)
 - 10대 주요 수입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29.8%), 목재류(-20.8%) 등의 수입 감소가 컸던 반면, 반도체(129.4%)와 산업용 전기기기(45.3%)의 수입은 크게 증가

〈'23년 1~9월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입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무선통신기기	3,499	-29.8	17.9
2	의류	2,799	-3.5	14.3
3	컴퓨터	1,623	8.3	8.3
4	반도체	1,374	129.4	7.0
5	산업용 전기기기	1,025	45.3	5.2
6	신변잡화	959	2.8	4.9
7	목재류	558	-20.8	2.9
8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535	-19.1	2.7
9	기구 부품	414	-18.6	2.1
10	기타 섬유제품	307	-8.9	1.6
	기타	6,477	-	33.1
	합계	19,571	-5.9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 한국과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 對베트남 수출입 시 FTA 활용률 동향('23년 2분기 한-베 FTA 기준)
 - (對베트남 수입) 활용률 약 85%로 전체 협정 활용률에 비해 높은 편
 - (對베트남 수출) 활용률 약 52%로 전체 협정 활용률과 비교 시 낮은 편이나 분기별 기준 상승 추세
 - 한-베 FTA 및 한-아세안 FTA 혜택을 적용한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이 있음
- * 기준: '2023년 2분기 FTA 활용지도'상 베트남 FTA 특혜 대상 수출(입)액 5억 달러 이상이면서 수출의 경우 52%, 수입의 경우 85% 초과 품목

〈분기별 한-베트남 FTA 활용률〉

(단위: %)

분기	한-베트남 FTA 활용률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전체 협정 FTA 활용률	
	수출활용률	수입활용률	수출활용률	수입활용률	수출활용률	수입활용률
2021년 1분기	47.1	84.2	53.3	76.5	76.4	76.2
2021년 2분기	47.9	85.8	52.9	78.9	76.0	78.4
2021년 3분기	48.4	85.5	52.8	79.5	76.0	78.5
2021년 4분기	48.4	86.6	52.0	82.7	75.7	80.3
2022년 1분기	59.1	89.1	55.7	84.8	73.5	78.0
2022년 2분기	54.4	86.5	56.2	83.2	73.3	76.6
2022년 3분기	53.3	86.0	57.2	83.2	74.5	77.4
2022년 4분기	54.0	86.9	58.1	84.4	75.5	78.6
2023년 1분기	56.1	81.5	61.6	80.4	81.7	79.2
2023년 2분기	60.2	84.5	64.2	76.5	80.2	80.3

주: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분리 산출됨
 자료: 분기별 한눈에 보는 FTA 활용지도(관세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한-베 양국 간 한국-아세안 FTA 및 한국-베트남 FTA 체결 및 세계 최대 GDP 규모의 RCEP에 공동 참여
 - 한국이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아세안 FTA가 2007년 발효됨에 따라 對아세안 교역량 증대에 크게 기여
 - 한국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인 한-베트남 FTA의 2015년 발효로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상품 자유화 수준 채택, 양허 관세율 점진적으로 인하 중
 - * 한-베트남 FTA 협정문상 전체 관세율표 기준 평균 수입 관세율 2018년 4.43%에서 2029년 3.76%까지 인하 예정
 - 한국·베트남 포함 총 15개국이 참여한 RCEP는 참여국 GDP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베트남에서는 2022년 1월 1일 정식 발효

▣ 우리 기업 수출 및 FTA 활용 성공 사례

- EVFTA 한국산 원단 누적 기준 활용으로 EU 시장 수출 성공 사례 창출
 - 베트남에서 의류 상품을 생산하는 A사는 EVFTA(EU-Vietnam FTA 협정) 발효 이후 EU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
 -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자문을 통해 한국산 원단에 대한 EVFTA상 누적 기준 적용을 위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취득 등 제반 사항 준비

- EU 시장 수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취득에 성공하였으나, 상대국에서의 FTA 적용 누락 사실 확인. 적절한 절차 안내로 추가 양허 세율 적용
 - *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신고문언 포함 상업송장 사본으로 양허 세율 적용 가능, 그러나 EVFTA는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하기에 원산지 증명서 원본 상대 수입국 전달 필요

- 시사점

- 베트남은 한국의 제조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 무역이 빈번
- 이에 제3국으로 수출 시 베트남 참여 FTA 활용 가능성 검토 필요
- 특히 EVFTA는 한국산 원단을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하는 누적 기준을 채택, 한국산 원단의 EU 시장 진출 기회 제공
- 단, 누적 기준 활용 시 한-EU FTA 및 EVFTA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구비 유의 필요

▣ 우리 기업 수출 및 FTA 활용 애로 사례

- 한국과 베트남의 HS 코드 해석 상이로 인한 양허 세율 적용 애로 사례 발생
 - B사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과일류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수출 시 한-베 FTA 원산지 증명서를 기타 가공식품류가 분류되는 HS 코드 210690 및 원산지 결정 기준 4단위 세 번 변경 기준 충족 품목으로 발급
 - 베트남 수입 통관 과정에서 제품의 적정 HS 코드가 200899라는 세관 당국 이슈 제기, HS 코드 200899 분류 시 2단위 세 번 변경 기준 충족 대상으로 한국산 원산지 충족 및 양허 세율 적용이 불가능
 - * HS 코드 2106.90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 베트남 관세율표상 HS 코드 8단위에 따라 WTO 회원국 적용 세율 7~25%, 한-베트남 FTA 양허 세율 0~5%
 - * HS 코드 2008.99 '기타 과실·견과류의 조제품', 베트남 관세율표상 HS 코드 8단위에 따라 WTO 회원국 적용 세율 30~40%, 한-베트남 FTA 양허세율 0~5%
- 시사점
 - HS 코드 분류 체계는 WCO HS 협약에 따라 6단위까지 동일한 체계를 가지나, 해석 차이로 동일한 물품에 대해 양국 간 HS 코드가 상이한 경우 발생
 - HS 코드에 따라 적용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르기에 FTA 활용 전 물품의 정확한 HS 코드 확인이 필수. 필요시 한국 관세청 및 베트남 관세총국의 HS 코드 사전 심사 제도 등 관세 당국의 유권 해석 취득 검토

▣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시 유의사항

- FTA 활용 실익 및 원산지 결정 기준 파악 필요
 - 베트남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어 동일한 상품에 대해 적용 가능한 협정이 복수이므로 최적의 FTA 활용 실익 파악 필요
 - 특히 한국과 베트남 교역 시 활용할 수 있는 3개의 FTA 협정 중 상황에 따라 적용 협정 결정 필요
 - 단기적으로는 품목별 양허 세율 혜택이 가장 큰 한-베 FTA 활용이 유리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자재에 대한 누적 기준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 RCEP 활용 검토 필요
- 베트남 진출 기업 원산지 증명서 발행 애로사항 유의 필요
 - 베트남은 여러 협정문 규정상 수출 시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 한국 관세청의 인증수출자 제도와 같은 제도 부재로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선적 건별 서류 심사 과정 필요하며, 발행 과정에서 관할 기관의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석 상이 이슈 및 심사 지연 이슈 다수 발생함에 유의

나. 투자 진출

▣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동향

- 2023년 3분기까지 총 투자액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하였으나 점차 회복 중
 - 1~9월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0.2%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줄어들음(1~2분기: -67.6%)
 - 특히 제조·가공업 분야에서 1~2분기에 비해 3분기 투자가 확대되는 등 회복세가 나타남
 - 1~9월 한국의 투자 중 신규 투자는 353건, 5.1억 달러였으며 그 중 제조업 분야 신규 투자는 98건, 4.3억 달러(총투자의 16.3%)로 저조한 상황

〈2023년 분기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추세〉

		1분기	2분기	3분기
총 투자	프로젝트 수(건)	344	506	476
	투자액(US\$)	4.7억	7.2억	14.4억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수(건)	80	129	119
	투자액(US\$)	3.6억	6.6억	13.5억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9.20. 기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 집계

-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투자는 249건, 18.6억 달러(LG이노텍 10억 달러 증자)로 동 기간 한국의 베트남 투자 형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총투자의 70%), 지분 투자 및 주식 매입은 724건 2.9억 달러(총투자의 10.8%)
- 1~9월 투자된 주요 프로젝트로는 LG이노텍(10억 달러)을 비롯, 서진, SI FLEX, 한미 플렉서블, 태성, KH VATEC 등 전기·전자 업종에서 증액 투자가 상당수 이루어짐

〈최근 5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건)

연도	신규 프로젝트		증액 투자 프로젝트		M&A, 주식 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19년	1,137	3,668.7	457	1,580.2	2,959	2,667.9	7,917.0
2020년	609	1,205.8	354	1,740.1	1,823	1,003.1	3,949.1
2021년	361	1,198.9	280	3,162.8	1,301	591.4	4,953.1
2022년	416	1,118.8	361	2,818.6	1,215	941.6	4,879.0
2022.1~9월(A)	290	749.1	277	2,674.9	944	394.9	3,818.8
2023.1~9월(B)	353	511.1	249	1,864.5	724	289.4	2,664.9
증감률(A/B)	21.7%	-31.8%	-10.1%	-30.3%	-23.3%	-26.7%	-30.2%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9.20. 기준)

- 2023년 3분기까지 제조·가공업, 도·소매 유통 및 수리업, 부동산 경영업 등 기존 투자 선도 분야에서 투자 감소율이 높은 상황
 - 제조·가공업에 23억 7,000만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투자의 89.1%를 차지, 이어 도·소매 유통 및 수리업 1억 달러(3.9%), 물류운송업 3,800만 달러(1.4%) 순

〈2023년 1~9월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산업별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

분야	총투자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투자비율	신규+증자 투자금액	M&A/주식 매입 투자금액
제조 가공	2,374.8	-29.3	89.1	2,223.5	151.3
도·소매 유통, 수리	103.0	-30.5	3.9	31.6	71.4
물류운송	38.2	101.6	1.4	30.8	7.4
정보통신	31.9	-50.3	1.2	23.1	8.79
전문과학기술	30.7	-70.9	1.2	13.5	17.2
부동산 경영	28.6	-80.3	1.1	20.1	8.5
건설	17.6	46.6	0.7	11.3	6.3
호텔요식	14.3	-	0.5	6.7	7.6
기타	25.9	-	1.0	15.0	10.9
총액	2,664.9	-30.2	100	2,375.6	289.3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9.20. 기준)

▣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진입장벽(애로사항)

- 단기 출장자에 대한 비자 발급 및 파견 근무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현지 인력 채용 관련 문제
 - (비자) 현 규정상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해 단기(1개월 이상)로 파견되는 관리자 및 엔지니어 출장 시 사전 15일 전 신고를 통해 기업 소재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 규정 및 검증이 까다로워 수일 소요
 - (채용) 대도시 인근 지역의 경우 투자 과밀화로 인해 인력난이 높아지는 상황이며, 채용했다라도 1주일 이내 퇴사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
 - (노동허가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시 사전 채용 수요 보고, 해당 직무에 대한 베트남인 채용 노력, 외국인 노동자 자격 기준 확인 등의 절차 필요

- 강화된 소방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심사 기준으로 인한 제조 활동 어려움
 - (환경영향평가)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베트남 환경법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베트남 투자 시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 및 생산 수량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기관이 기존 성급에서 중앙정부기관(환경자원부)으로 강화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재허가 필요 기업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 발생
 - (소방 허가) 최근 지방 소재 기업 및 도심 화재 발생으로 인해 각 지방 소방기관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신규 공장 건설 및 증설 시 강화된 소방 허가 및 준공 허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아울러, 구 공장의 소방 허가도 재심사하는 지역이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 외국 투자기업 투자 인센티브 수혜 관련 애로사항
 -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 시 공단지역 투자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법인세 2년 면제, 4년 50% 감면) 혜택 이외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수혜가 어려운 상황
 - 이 밖에 하이테크산업·부품소재산업 분야 지원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며 비교적 큰 혜택(법인세 4년 면제, 이후 9년 50% 감면, 기본 법인세율 15년간 10% 적용)이 있으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지원 부재로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

* 베트남 법인세율: 기본 20%이며,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의 경우 17% 적용

▣ 투자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 화장품 유통 분야 진출 K사
 - (진출 전 상황) K사는 국내 화장품 유통 기업으로, 베트남 진출을 통해 화장품 직접 수입 및 유통, 궁극적으로 온라인 마켓 진출 희망
 - 베트남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1년간 홍보 및 소비자 성향 파악 진행
 - 이후 수출입 무역 및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 운영보다는 현지 유명 화장품 온라인 판매 채널 입점을 결정
 - 현재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채널에는 별도 수수료 계약을 통해 관계 유지 중
 - * 온라인 제품 판매율은 전체 매출의 30% 수준이나 연간 50% 이상 성장 중이며, 2~3년간 안정적인 사업 유지 시 자사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성공 요인) K사는 최초 진출 시 바로 큰 성과를 거두려 하기보다는 2~3년간 현지 제도, 관행, 운영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고 개선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시장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 시기적절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 베트남은 유망한 시장이나 한국과는 시장의 구조, 수요층, 구매력, 각종 인허가 등 한국에서의 사업 환경과 이질적인 부분이 많아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단계별 진출방안 마련 및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 필요

- 실패 사례 : 온라인 교육 분야 진출 A사
 - (진출 전 상황) A사는 국내 원격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이며 국내 시장은 수요 감소 및 경쟁 과다로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 해외 시장 진출 희망. 베트남 유아 및 중등 영어 교육시장은 현지 교육열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 잠재력이 풍부하고 한국 프로그램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출
 - 원격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베트남에 출시하려 하였으며 교육 서비스 결제금액을 한국에서 수령하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위해 텔레마케터를 고용
 - 그러나 시일이 경과하여도 큰 효과가 없자 베트남 현지 온라인 교육 사업자를 접촉하여 합작 법인 설립
 - 베트남 파트너사는 A사의 미비한 기술 지원 및 마케팅 비용 미지급을 근거로 계약 해지 희망, 현재 베트남 사업 철수
 - (실패 요인) 단순히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만을 보고 사전 준비 없이 진출한 사례이며, 타 교육 프로그램의 베트남 진출 과정을 참고하지 않고 ‘한국식’ 사업 방식을 무리하여 추진한 경우에 해당. 베트남 내에는 이미 상당수의 외국계 온라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지 기업이 사업권을 받아 직접 운영. A사와

같이 해외 결제를 통해 이익을 개발사가 모두 가져가고 현지 기업에 단순히 수수료만 주는 경우, 현지 파트너의 관심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현재 베트남은 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진입장벽으로 인해 해외 개발사들은 100%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 파트너에 대한 비교 우위의 조건 제시와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베트남 현지 교육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

다. 협력 유망 분야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 '23년 6월 23일 하노이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통해 향후 양국 간 협력 유망 분야를 확인 가능

〈행동계획 핵심 내용〉

분야	핵심 내용
외교안보 협력	○ 방산 기관기업 간 협력 모색 및 교류 강화
경제, 무역투자, 개발 및 농업 협력	○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 위한 경제협력 강화 ○ 무역 원활화 및 기업 활동 지원방안 신속 추진(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운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상호 합의(MAP),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협상 활성화 등) ○ 韓 금융기관 베트남 진출 인가요청 호의적 검토 ○ ODA 협력 강화('24~'27년간 무상원조 2억 달러 지원, 향후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무상원조 사업 추진, '24~'30년간 EDCF 20억 달러로 확대 및 EDPF 20억 달러 비구속성 지원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후변화, 천연자원 및 인프라 협력	○ 과학기술 이전 협력-디지털 전환 IT 프로젝트 이행 추진 ○ 기후변화환경 협력 강화(연내 한-베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베트남의 2025년 P4G 정상회의 유치 협력, 산림 분야 협력 강화) ○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LNG발전소 건설 등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위한 탐사개발투자 협력 강화
노동, 보건 및 교육 협력	○ 노동 협력 강화(조선 분야 등 숙련 근로자 및 새 직업군에서 협력, 베트남 내 한국 근로자 노동 허가거주등록 취득 편의 제공, 사회보험협정 조기 이행 협력 등) ○ 의료 협력 강화(베트남 질병통제센터 건립 협력, 한국 고품질 의약품 교역 확대 협력) ○ 교육 협력 강화(한국어 교육 확산 협약 신규 체결 검토, 상호 유학생 지원 강화(한국 정부의 GKS 장학생 지속 선발 포함), 베트남 지방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립 지원 장려, 베트남 내 한국어 교과서 편찬 지원 등)
문화, 관광 및 인적 교류 협력	○ 양국 국민 편의 증진 협력(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노력, 항공편 증대 여건 조성, 미래세대지자체 간 교류사업 확대, 한국대사관-베트남 지방성 공동 주최 Meet Korea 행사 매년 개최) ○ 문화행사 적극 추진, 문화산업과 스포츠 분야 인적 교류 및 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 협력	○ 한국의 한-메콩 협력기금 증액 및 메콩강위원회(MRC) 개발 파트너 신규 참여 검토 환영 등

주: 진출(희망) 기업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내용 위주 정리

자료: 경제외교 활용포털,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한-베 정상회담(’23.6.23.)〉



자료: 연합뉴스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위한 무역 원활화 및 고도화
 - (Korea PLUS in Viet Nam 및 Viet Nam PLUS in Korea*) 양국 내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플러스 조직(Viet Nam PLUS와 Korea PLUS)을 운영하고, W/G(양국 담당 국장이 공동위원장)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추진 → 수출입 및 현지 경영 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민관 협의 채널 강화
 - * '23년 한-베 정상회담 계기 양국 산업부 간 MOU 체결
 - (무역 고도화) 기존의 중간재와 부품 중심 상호보완적 교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콘텐츠 분야의 교역을 넓혀 교역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교역의 기반을 마련
 - * 켄 뚜엥 아잉 중앙경제위원장, FTA 및 양국 간 교역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심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힘(’23년 10월 한국 방문 당시)
- 민·관 협력 유망 분야 :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정책 목표 달성 협력
 - (베트남)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첫 번째 기후협정* 대상국(’21년 11월)이며 최근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 중
 - * (한-베)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21년 11월) : 파리협정 전반을 포괄하여 시장 메커니즘, 과학 및 기술 협력, 공동실무작업반 운영 등을 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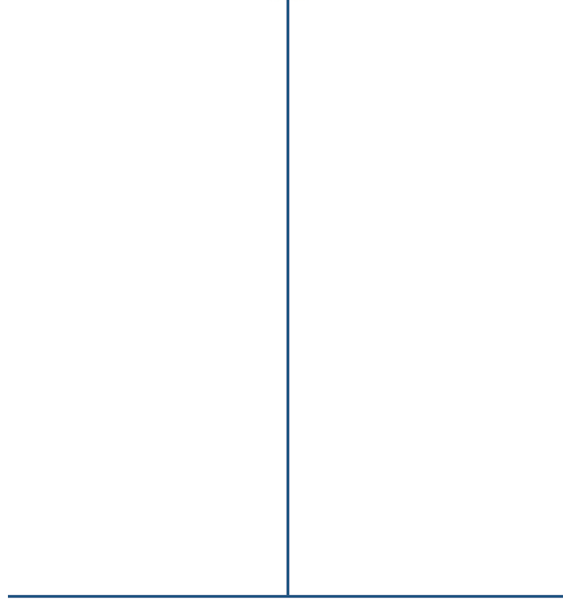
- 양국 정부는 한-베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NDC 달성을 위해 전체 목표 중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국외 감축 목표(3,750만 톤)의 달성을 위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 프레임 구축
 -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에 있어 감축·적응 의욕 상향,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건전성 촉진을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 선택 가능
 - (기대 효과) 양국 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전망
 - (정부) 양국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감축 실적 발굴 및 이전에 필요한 절차·양식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
 - (기업) 개발 절차 완료 시, 우리의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 시행 가능
- 민·관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광물 공급망 협력
 - (한-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한-베 정상회담 계기, 양국 산업부 간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확보 및 안정적 구축 토대 마련
 - * 주요 내용: △베트남 부존 원료 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양국 유관기관 간 탐사 협력,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 추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양국 기업의 합작법인(JV) 설립 지원 △베트남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기대 효과)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가공 기술을 결합한 수평적 협력 모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시너지* 극대화 기대
 - * (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우리 기업 투자 촉진
 - (베) 부존 원료 광물의 고부가가치화(정·제련 등) 기술 역량 제고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양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타트업 교류
 - 최근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지원 기관의 베트남 진출 활발

〈국내 AC·CV·CVC의 베트남 진출 최근 동향〉

기관명	구분	내용
넥스트랜스	VC	'04년 설립 이후 '15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스타트업 36개 사에 대해 투자 집행
더벤처스	VC	'14년 설립 이후 '2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 '23년 내 150억 원 규모 베트남 투자용 펀드 결성 예정
더인벤션랩	AC	주로 베트남 및 미얀마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한국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주요 포트폴리오사는 OKXE, Go2Joy, Gomi, 서울언니 등
롯데벤처스	CVC	'21년 베트남 법인 설립, '23년 내 베트남 펀드 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23년 10월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KSC 하노이) 개소

- 베트남의 기술 발전은 '립프로깅(leapfrogging, 개구리가 뛰어오르듯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급속한 기술 도약)'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IT 역량이 우수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 * 한국이 경험한 결제 기술 발전 과정(현금 결제 → 카드 결제 → 전자 결제)에서 베트남의 경우 카드 사용이 자리 잡기 전, 곧바로 QR 결제 등을 통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일상화됨
- 특히, 향후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중견기업과 현지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방식의 협업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

Chapter



진출전략





- (거시환경 분석) 베트남은 자국 기업을 공급망의 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도, 이를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개방적인 대외 정책도 동시에 펼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예상치를 밑도는 성장을 기록했으나, '24년에는 보다 더 나은 경기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 1억 소비시장으로 발돋움하고자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기 시작함

- (진출전략)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베트남 정부 정책과 방향을 함께하는 수출 및 투자 진출전략 구사 필요. 아울러 현지 파트너와의 공급망 협력,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 현지화 전략도 적극 추진해야 함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 단일 정당 체제의 사회주의 공화국 * 특정 기간 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면, 이에 대해 하위 공공 부문에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수행. 이에 비교적 정책 예측 가능성 자체는 높은 편이나, 실제로는 계획 및 정책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반부패 운동 전개 -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 행정 문제 유발 - 개방성과 폐쇄성 공존 * (개방성) 외국인 투자 유치 적극 추진, 16개 FTA 체결 및 추가 체결을 검토하는 등 개방적인 무역 환경 * (폐쇄성) 자국 기업 육성(생산·수출 확대) 우선시
E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GDP growth)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고성장 지속 예정 * 8%('22)→5%('23e)→6%('24e) -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23년 상반기에는 네 차례 금리 인하 결정 * 6.5%(3월)→5.5%(4월)→5.0%(5월)→4.5%(6월) - 베트남 통화 가치가 전년에 비해 하락하여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나, 해외 송금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수입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 중 - '23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4.5%)보다 낮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재정부(3.2~3.6%), 통계총국(3.3~3.6%), 중앙은행(3.4%) 전망 - '23년 9월 기준 투자 유치는 전년 대비 7.7% 증가, 미국과의 관계 격상, 공급망 기지로서의 입지 강화 등으로 인해 '24년도 FDI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예정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S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억 돌파, 중산층의 가파른 성장 * 전체 인구의 10% 미만('00) → 40%('22) → 75%('30e) - 젊지만(평균 연령 32.5세) 고령화되고 있는 1억 인구 * 65세 이상 인구: 9.1%('22) → 11.5%('29e) → 14.2%('39e) * 15~24세 인구 비율: 23%('20) → 20.9%('21) * 출산 가능 여성의 평균 자녀 수: 2.28명('01) → 2.1명('20) - 베트남의 소비 특성: 샵품과 자국적인 콘텐츠에 익숙하며, 옴니채널 쇼핑을 즐기고, 브랜드 충성도는 낮은 편
T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IT 인력 보유하였으나 여전히 숙련 노동력 부족 -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에 따른 제조업·첨단산업 발전 기대 * 후방산업에서 전방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베트남 지원산업 기업들의 인재 발굴 및 양성 노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더욱 증대될 전망이며, 이는 베트남 전반의 노동 생산성·숙련도를 향상시킬 것 - 다방면에서 립프로그(개구리가 뛰듯 급격한 기술 도약) 형식의 기술·사회 발전이 목격됨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베트남 시장 SWOT 분석〉

<p>강 점(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배터리, 건설·인프라 등 베트남에서 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 보유, 관련 주요 기업 기 진출 - 베트남 주요 소비층인 젊은 세대 대상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우호적 	<p>약 점(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또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가격경쟁 시 비교 열위에 위치 - 베트남 정부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음 - 진출 성공 경험으로 인한 방식, 문화 트렌드 이해 부족
<p>기 회(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장 중인 경제, 소비자의 절대적 수·구매력 증가 - 외국인 투자 유치, FTA 확대 등 개방 정책 추진 - 베트남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노력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기회 확대 	<p>위 협(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지지로서의 위상 강화에 따른 베트남 기 진출 또는 진출 예정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 첨단산업 진출 시 고숙련 인력 부족, 현지 기술 축적 미진 - 소비자들의 복잡성 증대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확장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립 -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발굴 필요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품질 측면 브랜드 이미지 강화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활용하여 심화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 확장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숙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필요 - 베트남에 비해 더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베트남 소비시장 공략 	베트남 정부 정책과 기업의 수출·투자 진출 전략 간 합치성 확보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더 커진 시장을 공략 - FTA 등 우호적인 교역 환경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 -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분야 진출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적극 도입
WT 전략 (방어/철수-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소비자의 변화된 특성을 공략 -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대비 	현지 파트너와의 공급망 협력 강화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구 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소매 및 유통산업	<p>▲ 최신 소비자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 후 유통망 다변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웰빙/간편성 등을 따지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브랜딩·마케팅 필요 - 옴니채널을 선호하는 소비자 특성에 맞추어 디지털 마케팅 강화
자동차산업	<p>▲ 베트남 자동차 시장 성장과 부품 제조산업 확대로 새로운 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하는 내수시장 등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제조 거점화 필요 - A/S용 자동차부품 등 유망 전망
프로젝트	<p>▲ 新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 대응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공급 안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자재 분야 협력 수요 모색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분야 진출 기회 발굴
FTA	<p>▲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RCEP 활용을 통한 3국 진출 가능성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CEP의 누적 기준 및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적극 활용 필요

생산기지 지위 공고화, 소비시장의 성숙	<p>생산기지·소비시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산업별 정교한 맞춤형 공략 필요</p>
-----------------------------	---

3-1. 1억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소비자 수요 맞춤형 전략 필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1억 인구, 중산층 비율 40%, 여성 노동 참여율 79%
- 베트남 소비자는 본인을 중심에 두고 가치소비를 하며, SNS의 영향으로 트렌드에 민감함. 또한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친환경 소비에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특성을 보임
- '23년 기준 베트남인은 1인당 평균 1.64대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SNS 사용 인구는 7,000만 명. 숏폼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 사용률은 약 77%
- 아세안에서 비교적 까다로운 소비자가 되고 있어, 성공적인 베트남 성공 진출은 타 아세안 국가에 대한 확장성을 지니게 됨

■ 어려워진 베트남 소비시장 공략,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선행되어야

- 베트남 소비자는 최근 조사 결과(Mckinsey, '23), 본인이 특정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갑을 과감하게 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를 아끼는 등 개별성이 강화됨
 - 예를 들어, 베트남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하지 않으며,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한국산을 구매함
-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과는 달리, 소비자 개별 단위에서는 아직 탄소중립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낮으므로 이를 고려한 마케팅 필요
 - 이에 아직 베트남 대상 '착한 소비' 마케팅 전략은 시기상조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베트남 소비자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단골 고객' 확보보다는 '다양한' 고객 확보를 위한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구사 필요
 - 즉, 소비자의 충성도를 구독 결제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아예 기존 고객 유지보다는 신규 고객 확보에 초점을 두는 전략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디지털 마케팅 및 옴니채널 마케팅의 중요성 지속

- 베트남에서 SNS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음
 - '23년 기준,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 사용률은 90%를 넘으며, 숏폼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의 사용률도 약 77%에 달함
 - 즉, 특정 플랫폼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떤 플랫폼에 마케팅을 집중할 것인지보다는 어떤 콘텐츠로 베트남 젊은 세대를 공략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

- 숏폼 콘텐츠에 친숙한 베트남의 젊은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옴니채널 전략
 - 베트남 소비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젊은 세대는 숏폼 콘텐츠(길이가 짧은 콘텐츠)에 익숙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짧은 시간 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
 - 또한 간편성을 중시하고, 숏폼 콘텐츠를 통해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게 된 베트남 젊은 세대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모션 활용이 가능하고, 손쉬운 구매 및 주문 결정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채널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결합한 옴니채널 마케팅 전략 구사 필요

3-2. 베트남 자동차 시장 성장과 부품 제조산업 확대로 새로운 기회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22년 말 기준, 베트남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400만 대로, 1,000명당 약 40대 보유
 - * '22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판매량 기준 최초로 50만 대를 돌파, 현지 조립생산 자동차는 34만 대
- 베트남 자동차협회 예측은 2030년 베트남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90만 대에 이를 것
 - * 수입차 소비 비중은 연평균 20% 이상 감소 중이며, 베트남 정부도 국내 생산 차량 소비 장려 정책 시행
- 현재 베트남 내 활동 중인 외국계 자동차 부품사는 약 350여 개사이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 국가별 자동차부품 제조사 진출 현황 : 일본(185개 사), 한국(82개 사), 대만(62개 사), 기타(20여 개사)

▣ 제조 거점으로서 잠재력 높은 베트남에 최근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공장 다수 진출

- 중국 주도로 내수용 차량(전기차 포함) 및 부품 제조사 투자 확대, 한국 및 대만 자동차 부품사 투자도 증가 추세
 -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1)’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체인 거점시장으로 부상 중
 - 정부 역시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자동차산업을 ‘전략 유치 산업’으로 지정하며 투자 유치에 큰 노력
 - 기존 완성차 제조사인 Thaco, Hyundai Thanh Cong, TOYOTA, Honda의 경우 부품 현지화율이 15~35%에 불과, 최근 자동차 부품사 진출 확대로 국내 부품 공급망 개선 기대
 - * 최근 3년 한국 자동차부품 제조사 29개 진출, 주요국 전체로는 약 140여 개사 자동차 분야 제조사 진출
 - '23년의 경우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요인으로 내수 판매 감소, 향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구매력 증가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
 -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2030년까지 최소 100만~120만 대 규모로 성장 예상

〈최근 3년간 주요 국가별 자동차 분야 주요 투자 프로젝트〉

국가명	투자 프로젝트(분야/투자규모/진출년도)
중국	BYD(전기차/2.5억 달러/2024년), SAIC(완성차/1.5억 달러/2024년), HAOHUA(타이어/5억 달러/2023년), Chery(완성차/00 달러/2024년)
일본	OKURA(도로/2,000만 달러/2023년), Onaga(자동차부품/2,000만 달러/2022년), INOUE(타이어/1억 달러/2021년), Daewon Auto(시트/1,200만 달러/2021년)
한국	Fine DNC(전장/3,500만 달러/2021년), Yura Corp(하네스/3,000만 달러/2022년), Kyungshin(자동차부품/2,000만 달러/2022년), KG Mobility(완성차 CKD/00 달러/2023년)

국가명	투자 프로젝트(분야/투자규모/진출년도)
대만/싱가포르	Ju Teng IG(자동차 엑세서리/2억 달러/2022년), Boltun(전자부품/1.6억 달러/2023년), Foxconn(전기자동차 차저/2억 달러/2023), LIOHO Machine(자동차부품/7,500만 달러/2023년)
베트남	VinES Energy(리튬 배터리/2.7억 달러/2022), Geleximco(전기차/8억 달러/2024~2025년), TMT Motor(전기차/00 달러/2023), TF Group(전기차/2.5억 달러/2023)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9.20. 기준)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 집계

〈베트남 완성차(CBU) 수입액 동향〉

(단위: US\$ 백만)

	국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5월
1	태국	1,073	1,509	1,429	614
2	인도네시아	438	559	1,053	296
3	중국	275	865	714	172
4	일본	110	150	131	84
5	미국	72	92	112	81
6	한국	74	106	27	5






자료: 베트남 자동차협회(VAMA)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성장하는 내수시장 및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제조 거점에 적격
 - 베트남 진출 한국 자동차 부품사는 약 80여 개사이며, 국내에서 생산된 반제품 수입 후 현지 가공하여 국내 재수출 또는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
 - 향후 베트남 기업 및 중국, 한국, 일본 완성차 기업에서 현지 생산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우리 진출기업의 납품 기회도 확대될 것
 - 특히, 중국 및 베트남 자국 전기차 제조 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국 전기차 부품 기업의 진출 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베트남 완성차 기업 생산 방식은 주로 CKD(Completely Knocked Down) 방식으로 연료 파이프, 워터 탱크 커버, 타이어 등 일부 부품만 현지 조달, 기타 부품은 수입에 의존

〈완성차 제조사 부품 현지화 요율 및 목표〉

(단위: %)

	기업 평균	승용차	트럭	버스	전체 목표
	16~19%	16~19%	35~45%	60%	60%
	12~15%	35%(Accent)	25%	-	40%
	20~25%	30%(City) 15%(CR-V)	-	-	40%
	19~22%	39%(Innova)	-	-	45%
	8~10%	10%(Fadil)	-	-	60%

주: Thaco는 KIA, PEUGEOT, MAZDA 라이선스 생산 중이며, TC Motor는 현대자동차 합작사, 괄호 안은 차종
 자료: VIRAC('21년 베트남 자동차 및 부품산업 리포트)

• A/S용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은 주로 자동차 제조 및 조립 회사에서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교체 및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 수입/유통 전문기업도 있음
- 베트남 내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따라 노후 차량에 대한 A/S 수요도 크게 높아지는 추세로, 현지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차량용 부품의 경우 AKFTA 적용 시 5~10%, 미적용 시 평균 22.5%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현지 생산 후 공급하는 경우 진출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음

3-3.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 협력 기회 발굴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2년 12월 G7 포함 9개국과 체결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목표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속화
- 친환경에너지 인프라(전기차 충전설비, 스마트그리드 등) 및 관련 기자재 수요 지속 증대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21~'50년 전략 목표 담은 PDP 8 확정 발표('23년 5월)
 - '21년 3월 PDP 8 초안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COP26 넷 제로 선언 등 국제적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및 이행 계획 반영을 위해 수차례 수정
 - ('25년)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시범 운영, ('28년) 거래소 공식 출범 명문화 예정
 - * '20년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정의하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탄소배출권의 교환 등 탄소배출권 시장을 명시
 - 청정 개발 체제(CDM)에 따라 총 276개 프로젝트 진행 중('22년 말 기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 현지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 동향 모니터링 통한 입찰 참여 기회 모색
 - 우리 기업의 제3국 협력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내 기업-주요 발주처 간 공동 사업 개발 추진
- 유망 품목(분야)
 - 전기차 충전설비 및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태양광·풍력발전, 생활·산업폐기물 재활용 및 발전 등
 - 친환경온실가스 감축 관련 품목(분야)에서 협력 수요 지속 및 확대 전망

3-4.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RCEP 활용을 통한 3국 진출 가능성 도모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원재료 수입 및 현지 가공 이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가공 무역 형태의 거래 활발
- 양자 FTA 협약 이외에 다자 FTA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활용 가능한 관세 인하 혜택 증가
 - * 연결 원산지 증명서, 누적 기준 등 한국 기업 입장에서 활용이 유리한 원산지 기준
- 특히 최근에 발효한 RCEP의 양허 세율 혜택 증대로 기업 입장에서 활용 혜택 검토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RCEP 참여 15개국에 대해 모두 발효 완료 및 지속적인 양허 세율 인하
 - RCEP는 2022년 1월 1일 10개국에 대해 발효한 이후 2023년 6월 필리핀의 발효로 15개국에 대해 모든 발효 절차를 마쳤으며, 이로써 한국 수출품 및 한국 진출 기업의 베트남 생산품에 대한 RCEP 활용 가능성 증대
 - 베트남에서는 2022년 1월 1일 RCEP가 발효되었으나, 행정적인 절차 지연 문제로 수입 시 RCEP 양허 세율 적용이 지연되어 RCEP 세율 활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었음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RCEP의 누적 기준 및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 적극 활용 필요
 - RCEP는 광범위한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제시하여 한국 및 중국 수출 원자재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누적 기준 활용 가능
 - RCEP 참여 15개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자 FTA 원산지 증명서 대신 단일화된 RCEP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어 원산지 관리 부담 대폭 감소
- 의류제품, RCEP 협정 2단위 세 번 변경 기준 채택으로 원산지 관리 부담 완화
 - 기 발효 협정들과 달리 RCEP는 61류와 62류의 의류 상품에 대해 2단위 세 번 변경 기준(CO)으로 통일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가공 공정 기준 및 역내산 원재료 제한 규정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베트남에서 한국산 원재료를 활용해 제조한 섬유·의류를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진출 기업의 경우, 베트남이 참여한 기 발효 FTA보다 충족이 수월한 RCEP 협정 활용으로 수출 증대 기회 도모 가능

〈베트남 기 체결 FTA 및 의류제품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FTA 활용 모델



협정명	참여국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비고
RCEP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CC(2단위 세 번 변경 기준)	충족	원단과 스웨터 2단위 상이 (원단 60류, 제품 61류) 일본 수출 시 RCEP 세율 혜택 적용 가능
AJCEP	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CC(2단위 세 번 변경 기준) 그러나 일부 HS 코드의 직물 제조를 위해 비역내산 원재료 사용 시 역내국에서 편성된 것	불충족	60류 원단 역외국(한국) 편성,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 일부 HS 코드의 직물 : HS 코드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9-5408, 5512-5516 및 60류의 직물
VJCEP	베트남, 일본	CC (2단위 세 번 변경 기준) 그러나 일부 HS 코드의 직물 제조를 위해 비역내산 원재료 사용 시 역내국에서 편성된 것	불충족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산업용 로봇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을 자랑하지만, 첨단 제조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숙련노동 인구는 부족하며, 최근 수년간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 중 -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Decision No. 569/QĐ-TTg, '23년 5월)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베트남 산업용 로봇 시장 예상 규모는 2.9억 달러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5.3% 성장해 '28년에는 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Statista, '23) - 현재 베트남 산업용 로봇의 50% 이상은 전자·전기산업 및 자동차산업에 사용되고 있음(Statista, '23)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업) ABB(스위스), Fanuc(일본), Omron Adept(일본), Kawasaki(일본) 등(Statista, '23)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진출 또는 진출 예정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 기회 도모 필요 - 주로 일본 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전자·전기산업 및 자동차산업용 로봇 시장 외에 자동화 수요가 새롭게 생기고 있는 산업을 틈새시장으로서 노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품목명 2		
반려동물 관련 용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 '애완' 동물보다는 '반려' 동물이라는 인식이 확산 -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 증가, 소득 향상 등 인구구조 변화도 베트남의 '펫코노미' 성장 견인 요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22년 시장 규모 약 1,567만 달러 추정, '18~'22년간 연평균 약 10.2% 높은 성장률(Euromonitor, '23)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봉쇄·격리 조치가 오히려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선호 동물) 1위 개(76.9%), 2위 고양이(55.0%) (VET Equipments, '23)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관련 주요 기업) Charoen Pokphand Group, Mars Inc, Archer Daniels Midland Co 등(Euromonitor, '21)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펫 인플루언서(반려동물 콘텐츠 수익화), 전시회(베트남 펫페어)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 중 효과적인 전략 선택·조합 - 펫푸드, 펫패션, 펫테크용품 등 다양한 품목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통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필요
품목명 3		
간편조리식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국가 중 특히 베트남에서의 간편조리식(Ready To Eat, RTE)의 인기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식문화와도 연관. 베트남은 반미, 쌀국수, 2~3가지 반찬을 곁들인 가정식 등 간단한 식사를 농업사회 때부터 선호 - 베트남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율은 전 세계 평균 65.1%보다 14%p 높은 79%(Economist)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정 간편식, 밀키트 등 제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22년 연평균 성장률은 아시아 평균인 3.9%의 4배에 달하는 약 18%, '22년 시장 규모는 1.7억 달러, '27년에는 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Euromonitor, '23)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베트남 대기업이 40% 이상 차지, 나머지 현지 중소기업이 15% 점유율, 해외 기업 점유율 45% 중 한국 기업들은 12.5% 차지(Euromonitor, '23)

	진출방안	- 더 이상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소비를 하지는 않으므로, 베트남인의 입맛·취향에 맞도록 현지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품목명 4		
라면	선정사유	- 한국 라면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23년 라면 수출 역대 최대), 한류 영향력 지속 등 긍정적 요인 다수 - 1인당 라면 소비량 및 라면 소비 성장률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 여건도 우호적
	시장동향	- 라면 소비 성장률,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 모두 세계 1위(세계라면협회, '22) - 한국 기업의 베트남 라면 시장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 (주요 기업) Acecook Vietnam, Masan, Asia Cook 등 베트남 기업 3개 사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 차지 - 한국 O사: '18년 박닌공장 준공, 베트남 법인의 '22년 매출액(646억 원)은 전년 대비 43.1% 증가 - 한국 S사: '69년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라면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2년 한국의 對베트남 라면 수출액 중 절반 차지
	진출방안	- 현지 라면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므로 가격 경쟁력 확보 고민 계속 필요 - 대용량을 선호하지 않고,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을 선호하며, 국물을 먹지 않는 점, 때때로 새콤한 맛을 위해 채소 및 과일을 후첨하기도 한다는 점 등 현지 고유의 라면 식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분석 필요
품목명 5		
한국 주류	선정사유	- 아시아 최대 규모 주류 시장(동남아 2위, 아시아 3위)과 한류의 시너지 효과 기대 - SNS 등을 통해 소주, 막걸리 등을 취향에 맞게 변형하여 즐기는 콘텐츠가 널리 퍼져 있음
	시장동향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 성장 중으로, '08~'19년에는 연평균 9.5% 성장해 '22년 기준 주류 소비량은 49억 달러였으며, '27년에는 80.4억 달러로 급성장 전망 (Euromonitor, '23)
	경쟁동향	- 맥주가 가장 인기 있는 주종이므로, 전체 주류 시장에서 글로벌 맥주 브랜드 두 곳이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맥주 기업 2개 사(HABECO, SABECO)가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Euromonitor, '23) - '23년 4월, 맥주 시장 1위 H사는 '소맥'의 인기를 겨냥, 자사의 브랜드 T맥주에 소주를 결합한 신제품 출시 - '23년 10월, 국내 H사는 첫 해외 생산 공장을 베트남 타이빈성에 설립 추진
	진출방안	- 종전 한인 마트 및 식당을 통해 유통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에는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다양해졌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함 - 맥주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차별화 전략 필요 - 베트남의 선물 문화를 고려하여, 현재 저가 주류 시장에서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 브랜드의 고급 주류 시장 진출 기회도 살펴봐야 함
품목명 6		
고단백/단백질 식품	선정사유	-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SNS 및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으로 인해 보디 빌딩 및 체중 감량 등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됨 - 이에 따라 스포츠 영양학(Sports Nutrition)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어 고단백 식품 수요도 늘어날 것
	시장동향	- 아직 대다수의 베트남인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육류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운동에 소극적인 소비자는 스포츠 영양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고단백 식품의 효능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 체력, 신체적 아름다움을 중요시하여 고단백 식품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23년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로 추정되며, '28년에는 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점유율이 낮지만,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매출과 성장을 기록 중인 품목은 단백질 파우더 - 이는 해당 품목이 근육을 키우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마케팅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유통 채널(헬스장, 약국, 이커머스, 소셜커머스 등)을 확보했기 때문 -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글로벌 기업 제품의 품질이 현지 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현지 기업의 존재감은 아직 미약 - (주요 기업) Herbalife Nutrition을 선두로 하여 On, MuscleTech 등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 주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고객은 운동을 좋아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으로, SNS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필요 - 베트남 소비자는 '간편성'을 특히 중시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미 글로벌 브랜드가 자리 잡고 있는 파우더 시장보다는 스포츠 단백질 RTD(Ready To Drink, 즉석음료) 및 단백질/에너지 바 등을 통한 진출 기회 포착 필요 - 한인마트, 편의점, 대형마트, 헬스장, 드럭스토어, 온라인몰 입점 등 유통망 다변화 전략 필요
<p>품목명 7</p>		
레깅스 등 스포츠 의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피트니스 산업 전반의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 의류 시장의 동반 성장도 기대됨 - 한국에서의 유행은 1~2년 내 베트남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필요하며, '1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레깅스'에 특히 주목 필요(한국에서의 '레깅스' 키워드 검색량은 구글 기준 '19년에 최고점을 찍고 점차 하락 중) - 특히 레깅스와 같은 품목은 베트남 여성 대상 기능성 의류에 대한 수요와 스타일을 중시하는 수요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음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7% 성장한 3.3억 달러, '23년 시장 규모는 3.7억 달러로 전망됨(Euromonitor, '23) - 온라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유리한 이커머스가 주요 판매 채널로서 적극 활용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기준 아디다스(1위), 나이키(2위) 외에는 점유율이 낮으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쳐도 23%에 불과하여 진출 기회가 있음(Euromonitor, '23) - 두 브랜드의 선전은 스포츠웨어 특성상 기능 및 소재(통기성 소재, 땀 흡수 원단, 압력 감소 운동화 등)가 중요한데 글로벌 브랜드의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있기 때문 - 이는 가격에는 민감하지만 좋은 품질을 추구하는 베트남인들이 가성비 제품을 판매하는 현지 브랜드 Biti's를 적지 않게 찾고 있는 이유를 입증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바이를 애용하는 베트남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의류 디자인 및 마케팅 필요(베트남 여성의 경우 자외선·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천으로 팔·의류를 가리는 경우가 다수) - 스포츠 의류는 기능성 의류인 만큼, 베트남 소비자가 중시하는 '간편성'과 '편리성'을 키워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순히 착용 시뿐만 아니라 구매부터 착용, 세탁 및 관리까지 의류 사용의 전(全) 과정 측면에서의 간편성과 편리성을 의미함
<p>품목명 8</p>		
구강 관리용 전자제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노이 국립중앙치과병원(NHOS)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90% 이상이 구강질환을 앓고 있음 - 의료 정보 접근성이 증대됨에 따라 치위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구강 위생 관련 제품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 (Euromonitor) '20년 시장 규모 3.2억 달러 추정, '25년까지 연평균 6.45% 성장해 '25년에는 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Statista) '23년 3.5억 달러에서 연평균 2.19% 성장해 '28년에는 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해외) P&G(미국), Unilever(영국), Panasonic(일본), Xiaomi(중국)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 진출 - (현지) 베트남 생활가전 기업 중 Smilee Vietnam, Welook 등이 최근 구강 관리 기기 시장 진출 타진 중
	진출방안	- 성공적으로 진출한 해외 브랜드 P사는 현지 치과 등과 협약을 맺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이를 우리 기업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용, 치아교정기용 등 사용 대상에 따른 기능 다변화도 고려해볼 수 있음
품목명 9		
자외선 보호·차단 기능 화장품	선정사유	- 엔데믹 이후 외출 수요 증가로 인해 자외선 차단제 소비 증가 - (피부색이 어두울 경우 야외에서 노동을 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인식해왔던) 문화적 습성과 더불어 최근 SNS의 영향을 받은 외모 중시 풍조로 인해 밝은 피부색 선호가 더욱 뚜렷
	시장동향	- '22년 자외선 차단 제품 시장 매출은 3,144만 달러, '27년까지 연평균 8.2% 성장해 '27년 예상 매출은 4,946만 달러(Statista, '23)
	경쟁동향	- HS 코드 제330499호 기준, 한국은 최근 3년('19~'21년)간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 - 다만, '22년 기준 품질 신뢰도가 높은 일본산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율(각각 54.9%, 86.9%)이 한국 제품의 수입 증가율(44.6%)보다 높아 경쟁 심화 예상 - (한국 외 주요 해외 브랜드) 라로슈포제, 유세린, 아넷사, 비쉬, 니베아, 선플레이 등
	진출방안	- 여드름 등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밝은 피부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톤 보정, 미백 등 기능을 보완해 경쟁력 확보
품목명 10		
캠핑/글램핑 용품	선정사유	- 자동차 구매 가구의 증가, 코로나19의 영향(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출 수요 증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이 흡수)이 맞물려 베트남 캠핑 산업이 크게 성장
	시장동향	- (시장 규모) 1,068만 달러('19) → 177만 달러('20) → 325만 달러('21) → 764만 달러('22) → 1,471만 달러('23) - (전망) '23~'27년간 연평균 성장률 39.8% 성장, '27년 규모는 5,622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Statista, '23)
	경쟁동향	- (텐트, 의자 등) Naturehike, Mountainhiker, TanxianZhe, Trackman 등 중국산 선호 - (조리기구 등) Gerber, Igloo, Coleman, Trangia 등 미국·유럽산 선호
	진출방안	- 가격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품목에 해당, 가격보다는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이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첨부 2 ▶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상업용 세탁 서비스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도시 거주 젊은 세대·1인 가구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도시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세탁·건조기 설치가 어려운) 소평형 물량 선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상업용 세탁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아시아 평균치인 3.6%를 상회하는 6%로 전망되며, 규모는 연간 2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베트남 산업무역부, '22.5월) - 현재 베트남에는 15,316개의 세탁소가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이 '20~'22년에 창업(베트남 산업무역부, '22.5월)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업) Speed Queen, UniMac, Huebsch, Primus, IPSO 등 - (최근 동향) 마산그룹: '23년 8월 남부지역에 4개 세탁소 체인(Joins Pro) 오픈, GV Laundry: '23년 5월 북부지역에 세탁소 체인 오픈
	진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프빨래방 매장의 경우 매장 분위기, 부가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이 약 30분 내외의 세탁/건조 시간 동안 매장에 머물며 재방문 의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시장 선도 기업이 아직 없으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시장 선점 노력 필요
품목명 2		
헬스장, 요가 센터 등 체육시설업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도시화 및 중산층의 성장 등 피트니스산업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 SNS 및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으로 인해 보디 빌딩 및 체중 감량 등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접근이 어려운 고가의 장소라는 이미지(2010년대 초반)에서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장소라는 인식 확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ifornia Fitness & Yoga) '07년도에 베트남 진출, 체인점 50개, 회원수 50만 명, 시장 점유율 약 73%, 월매출 약 1,300만 달러(Statista, '23) - (Elite Fitness) '10년 설립, 회원수 3.5만 명, 14개 시설 운영, '21년 기준 월매출 800만 달러 이상 (Vietdata, '22) - (기타 주요 브랜드) Fit24, Citigym, Genfit Gym&Yoga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문화, 비만율이 적다는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 필요
품목명 3		
모바일 게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앱스토어에는 일평균 50개 이상의 게임이 매일 출시되고 있음(App Annie, '21) - 1억 인구, 스마트폰 가입자 1.1억 명, 5,000만 게임 유저, 다수의 저임금 IT 개발자 등 모바일 게임 경제를 이끌어갈 풍부한 인적 자원 보유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주요 퍼블리셔) Garena(싱), Gameloft(佛), Ubisoft(佛), Tencent(中), NetEase(中) 등 - (베트남 주요 퍼블리셔) VNG, VTC, Funtap, Gamota, Amanote 등 - (전망) 베트남 게임산업은 연평균 9%의 성장률로 아세안 지역 평균인 8.2%를 상회하며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 (주요 개발사) Sotatek JSC, Netpower Vietnam, Beetsoft, Amella Technology, Dirox, Rikkeisoft 등
	진출방안	- 세계 그 어떠한 인구보다도 슷폼 콘텐츠(짧은 형식의 콘텐츠)에 친숙하므로, 속도감 있는 전개가 가능하도록 게임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퍼블리셔, SNS 플랫폼 등 현지 주요 파트너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필요
품목명 4		
에듀테크	선정사유	- 1개 학년 인구가 평균 180만 명으로서 한국 학령인구의 4~5배 수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 및 성장 지속 -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한국과 시장 특성 유사
	시장동향	- 최근 8년간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규모(1조 300억 달러)는 첨단기술 분야 중 전자결제, 이커머스에 이어 3위(Do Ventures, '23) - '22년 한 해에만 에듀테크 100개 사 이상 창업했으며, 현재 300개 이상의 에듀테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경쟁동향	- (최근 현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사례) 테키 알파(500만 달러, '23), 마인드 X(1,500만 달러, '23), 에듀피아(1,400만 달러, '22) 등 - (성공 사례) 베트남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베트남 명문대 학생을 '돌봄튜터'로서 매칭하는 한국 스타트업 '야호랩' - (성공 사례) 현지 최대 스타트업 경진대회 '이노엑스'서 수상 후 현지 주요 미디어 그룹 VTC 온라인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한국 스타트업 '호두랩스'
	진출방안	- 현지 사업을 위한 파트너 발굴이 중요하며, 고객(학습자) 연령층에 따른 마케팅 전략 세분화 필요
품목명 5		
콜드체인 서비스 (냉동창고업, 냉동운송업 등)	선정사유	- 콜드체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베트남의) 수산물 수출('22년 기준 전년 대비 24% 증가), 생식품 수입, 국내 유통(최근 10년간 연평균 7.8% 성장) 모두 급성장 하며 수요 견인(Fiingroup, '23)
	시장동향	- (현황) '22년 시장 규모 2억 3,000만 달러 추산, 전체 냉동창고 용량 약 100만 파렛트 - (전망) '23~'26년 사이에 23개의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26년까지 베트남의 냉동 창고 총 용량은 170만 파렛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Fiingroup, '23)
	경쟁동향	- 운송업의 경우 상위 10개 사가 보유 트럭 대수 기준 시장점유율 70%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 업체와의 경쟁도 치열
	진출방안	- 수요와 잠재력이 모두 큰 시장으로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IT 기술을 접목한 콜드체인 관련 첨단 기술 및 선진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진출전략 필요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시기/장소(잠정)
수출 지원	- 베트남 소비자 전략사절단 • 지방 무역사절단 통합 소비자 특화 사절단 추진	• 3월, 5월, 9월(3회) • 하노이, 호치민
	- 2024 베트남 엑스포(Vietnam Expo) 한국관 •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 한국관 지속 참가를 통한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 4.3~6 • 하노이
	- 한-베 문화 페스티벌 연계 우수 소비자 판촉전 • 현지 유통망 연계 K-소비재 수출 지원	• 7월 • 다낭
	- 베트남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협업, 한국 유망 소비재 베트남 유통망 입점 지원	• 연중
진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 2024년 지방성 경영 지원 설명회 • 진출기업 대상 관세, 세무, 회계, 코트라 서비스 등 관련 설명회 개최	• 1분기 • 호치민(및 인근 4개 성)
	- 제5차 정책 간담회 • 베트남 정부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	• 4월 • 하노이
	- 2024년 호치민시-진출 한국기업 간 대화 • 호치민시 진출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발표 및 이에 대한 호치민시의 입장 청취 등 진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	• 시기 미정 • 호치민
투자 진출 지원	- 베트남 투자 협력 웨비나 • 베트남 투자환경, 투자 유망 주요 지방성 및 산업단지 소개 통한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 활성화 지원	• 하반기 • 하노이
	- M&A 세미나 •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베트남 M&A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베트남 M&A 최신 동향 및 주요 매물 소개	• 하반기 • 하노이
해외취업 지원	- 2024 해외 취업 멘토링 • 베트남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기반 마련	• 7월 • 다낭
프로젝트 수주 지원	- 2024 동남아 스마트 ICT 전략사절단 • 베트남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개발 수요 대응 시장 진출 기회 발굴	• 6월 • 다낭, 방콕
FTA 활용 지원	- 진출기업 대상 베트남 필수 인증/FTA 활용 설명회 • 진출기업 대상 수입 필수 인증 개관 및 FTA 활용 전략 등 설명	• 3월, 하반기(2회) • 하노이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일정	시기(잠정)	비고
제15대 국회 7차 정기회의	5월	제15대 국회 임기: 2021~2026년
제15대 국회 8차 정기회의	10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일정	시기(잠정)	비고
2023 베트남 통계연보(Statcal Yearbook of VietNam) 발간	6월	베트남 통계총국

▣ 유망 전시회 캘린더

* 행사명 클릭 시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이동

주요 행사	기간(잠정)	장소	주관
2024 베트남 국제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 전시회 (VIFA 2024)	2.26~29	호치민	Handicraft and Wood Industry Association of HCMC(HAWA)
베트남 원예, 화훼 전시회 (HortEX Vietnam 2024)	3.13~15	호치민	Minh Vi Exhibition & Advertisement Services(VEAS)
2024 베트남 엑스포 (Vietnam Expo 2024)	4.3~6	하노이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2024 사이공 섬유 전시회 (Saigon Tex 2024)	4.10~13	호치민	CP EXHIBITION LTD
2024 뷰티케어(미용) 엑스포 (Beautycare Expo 2024)	4.18~20	하노이	Vietnam Pharmaceutical Companies Association
2024 광업/건설업 전시회 (Mining & Construction Vietnam 2024)	4.24~26	하노이	Informa Markets Vietnam
2024 베트남 카페쇼 (Vietnam International Cafe Show 2024)	5.9~11	호치민	Exporum Vietnam
2024 베트남 덴탈 의료·기술 전시회 (Dental Vietnam 2024)	5.9~12	하노이	VietFair (Vietnam Advertisement & Fair Exhibition JSC)

주요 행사	기간(잠정)	장소	주관
2024 하노이 인쇄 & 포장산업 전시회 (Hanoi International Printing & Packaging Industry Exhibition)	5.29~6.1	하노이	Ministry of Industry & Trade – Vinexad National Trade Fair & Advertising J.S.C (VINEXAD)
2024 하노이 플라스틱 & 고무산업 전시회 (Hanoi Plas Print Pack 2024)	6.5~8	하노이	Ministry of Industry & Trade – Vinexad National Trade Fair & Advertising J.S.C (VINEXAD)
2024 베트남 전자설비 전시회 (Vietnam Electronic 2024)	6.6~8	호치민	Apdex Join Stock Company
2024 코팅 엑스포	6.12~14	호치민	Minh Vi Exhibition and Advertisement Services Co., Ltd
2024 국제 농업기기, 화학, 제품 전시회 (AGRI VIETNAM 2024)	6.12~14	호치민	Minh Vi Exhibition and Advertising Services Company Limited
2024 호치민 자동차 전시회 (Automechanika Ho Chi Minh 2024)	6.20~22	호치민	Messe Frankfurt(HK) Ltd/Chan Chao International Co. Ltd
2024 국제 보안, 안전, 소방설비 전시회 (SECUTECH VIETNAM 2024)	8.14~16	호치민	VietFair (Vietnam Advertisement & Fair Exhibition JSC) Messe Frankfurt(HK) Ltd.
2024 베트남 제조업 전시회 (VME Manufacturing Expo)	8.14~16	하노이	Reed Tradex Company RX Global Exents
2024 국제 신발 & 가죽 전시회 (Shoes & Leather Hanoi 2024)	12월	하노이	Top Repute Co. Ltd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정호	과장	하노이 무역관	+84 (0)24 3946 0511(#600)	junghopak@kotra.or.kr
2	김주연	차장	하노이 무역관	+84 (0)24 3946 0511(#300)	je.kim@kotra.or.kr
3	김경돈	팀장	하노이 무역관	+84 (0)24 3946 0511(#164)	kimkdon@kotra.or.kr
4	박민설	관세사	하노이 무역관	+84 (0)24 3946 0511(#620)	minsulpark@kotra.or.kr
5	권자영	대리	하노이 무역관	+84 (0)24 3946 0511(#622)	jayoungkwon@kotra.or.kr

2024
베트남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 979-11-402-0858-6 (95320)